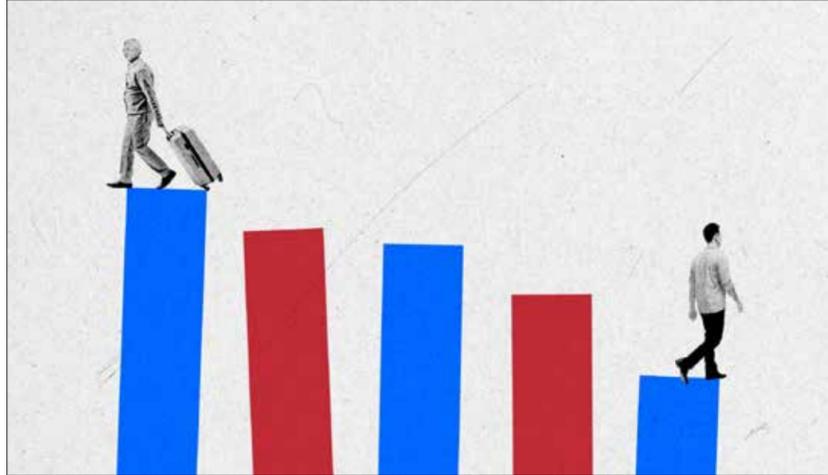


한국 선교의 미래는 과연 낙관적인가? 감소 추세 가운데 남아있는 한국 선교의 가능성

한국 국적의 헬렌 이 선교사는 2002년부터 5년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2015년, 그녀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로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났다. 새로운 도시와 다른 팀이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그녀의 최연소 선교사였다라는 점이다. 45세의 이 선교사는 무슬림에게 다가가는 선교 단체에서 멤버 케어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 선교사는 “최근 3~4년 동안 장기 선교사 후보로 지원한 젊은 가족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21세기 전반기에 한국은 선교사 파송 강국이 되었다. 2015년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선교사 파송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 로잔운동의 지상명령 현황 보고서에 인용된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은 선교사 파송 분야에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나라 선교사의 폭발적인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젠나 안안우, 크리스티안 카스트로, 데이비드 로는 로잔 보고서에서 “한국 교회와 선교는 최근 세속화, 젊은이들의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 대형 교회 스캔들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선교사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선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대 들어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다. 90년대에 한국 교회는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복음을 전하고자 외쳤다. 이 비전은 10년 만에 실현되었고, 2010년에는 선교사 수가 두 배인 2만 명으로 늘었다. 그 이후로 성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KRIM의 데이터는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은 총 21,91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는 2022년 20,204명, 2020년 22,259명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의료 지원 활동 중이던 한국 교회 봉사자 23명을 납치해 2명을 살해한 납치 사태가 선교 파이프라인이 둔화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한국인 선교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2007년 인질 사건 이후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라고 한국의 카리스 국제문화연구원의 설

립자이자 대표인 문상철 씨는 말한다(가장 최근에는 올해 8월 케냐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납치된 사건이 있다.)탈레반이 인질 석방 대가로 한국 정부로부터 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사건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한국인 모두로부터 선교 활동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문 씨는 이 사건 이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기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신앙의 배타성을 비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탈레반의 살인 납치 사건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무슬림에 대한 ‘거대한 공포증’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슬람으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이 씨는 말했다. “교회의 많은 사람이 여전히 [무슬림]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 그들은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죠”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크리스챤티티 투데이(CT)가 인터뷰한 한국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은 로잔 보고서에서 관찰된 데이터와 추세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선교사는 한국의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선교적 삶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표현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선교 운동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교 추진력

1973년 빌리 그레이엄은 한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전도와 선교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그레이엄 목사의 선교에 대한 열렬한 헌신을 반영하고 있다.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안수를 받았다. 1974년 한국 교회가 2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 선교 운동(KMM)이 시작되었다. (3면으로 계속)



새로운 3040이 온다! 3040 이해하기 새로운 3040의 출현

지난 20년 동안 3040을 대표하던 그룹은 1970년대에 태어나 1990년대에 대학을 다니던 X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3040의 중심은 MZ세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M)세대가 이제 40대 중반에 이르렀고,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가 곧 30대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X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40대에 속해 있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X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매체에서는 X세대가 은퇴를 준비하며 큰 과정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 대한 기획 기사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3040 세대의 등장 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3040 세대의 출현은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대는 한국 교회의 역사상 종교에 가장 무관심한 세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률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회적으로도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종교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세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대의 특징을 사회 경제적 측면과 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4면 8면 신양칼럼 차용호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2.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3. 논문제목: 현대적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하나 텍스트):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이다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시며,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서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권혁천 목사
서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통진 목사

시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민경영 목사 (나침반교회)

지난 달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해온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에서 이를 연속으로 소위 삐삐라는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위키토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바람에 최소 수십 명이 죽고 몇 천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생겼다. 사이버 강국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헤즈볼라 입장에서 최첨단 통신기구인 스마트폰은 위치 추적을 당하니까 오히려 한물간 시대의 유물로 취급당하는 삐삐를 이용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내고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보부대인 모사드는 15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삐삐와 위키토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확실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다.

이런 일은 기원전 1200년경에도 있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한 것을 계기로 그리스 연합국과 트로이 사이에는 10년 전쟁이 벌어졌다. 이 때 그리스의 오딧세우스가 계락을 짜서 커다란 목마에 병사 30명을 숨겨두고는 트로이와의 전투에서 패퇴하는 척하였다. 승리에 도취된 트로이 군사들은 목마마저 전리품이라 생각하고 성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모두가 승리의 기쁨으로 만취한 밤이 깊었을 때 스파르타의 병사들은 목마에서 기어 나와 성문을 열어줌으로 트로이는 멸망당하고 말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은 현대건축의 거두인 미스 반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가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시다”고 한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두 말은 상반된 듯 보이지만 같은 의미다. 어떤 것이 대중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집요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다.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의도와는 반대로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패배될 수 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공하였다. 중장비도 없던 시대에, 성벽이 쌓아질 때 손해를 보는 주변 세력들의 반대와 저항과 살기 가득한 위험 속에서 예루살렘 안팎의 주민들과 함께 불철주야 건축하여 이렇게 대단한 위업을 이루었다. 이것으로 일단 하드웨어는 마련되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안의 소프트웨어에 집중하였다. 에스라와 함께 영적 각성운동을 벌였다. 성대한 봉헌식까지 마쳤다. 백성들은 호응했고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렇게까지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안전하니까? 아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벽 건축을 가장 반대하였던 호론 사람 산발랏이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사돈을 맺었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엘리아십에 의해 성전 안의 곡식 창고를 방으로 만들어 뱀처럼 파리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에 몰타기를 하였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쫓아내고 징계하고자 한다.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단의 본질은 마귀적이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사탄이다. 이런 세력들도 문제가 디테일에 있음을 안다. 지난 달 로잔대회가 한국의 인천에서 열렸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빌리 그레함이나 존 스토틀과 같은 탁월한 복음주의자들에게 의해 시작된 로잔대회를 네 번째로 한국에서 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성경관에 대한 분명한 표명이라든가 젠더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 부족한 것은 악마의 디테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노벨상에 대해 깊은 갈증을 느끼던 한국인들에게 노벨문학상은 너무나 큰 감격이었다. 작가 한강 씨가 쓴 작품들이 불타나게 팔리는 현실이다. 그런데 그의 책 속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패륜적, 외설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내가 읽은 <채식주의자>는 분명한 청소년 유해도서이다. 하나님도 디테일에 계시지만,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

minkyungyob@gmail.com

중상모락이 일상이 된 세상

소셜미디어에서 수없이 난무하는 중상모락

‘세속적이다’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데이비드 웰스의 정의가 지금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한다. “세속성은 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도리어 의로움을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다.” 웰스가 특히 강조하는 건 세속성의 해악성과 만연함이다. 죄에 너무 익숙해지면 죄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이렇게 물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어떤 죄가 정상으로 보일까? 너무나도 흔해서 죄라고 생각하기에 도 민감한 건 뭐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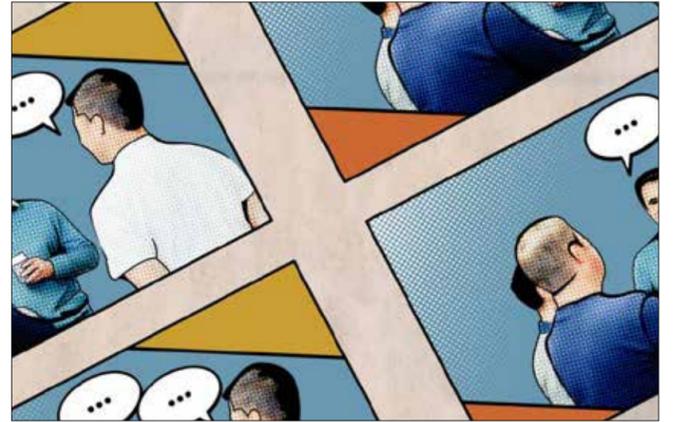
디지털 시대에 사는 지금 이 질문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중상모락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중상모락이란 무엇인가?

중상모락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그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허위사실은 때때로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안된 노골적인 거짓말이지만, 중상모락은 종종 기만적인 추론의 형태를 띤다. 그래서 타인에 관해서 최선이 아닌 최악을 가정하거나, 쓰기 편하게 편집된 몇몇 내용을 근거로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중상모락을 미워하신다(잠언 6:16, 19).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사탄은 중상모락을 좋아하는데, 그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존 블룸은 “중상모락의 독한 힘”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것은 사탄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관계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사명을 방해하고 탈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탄은 중상모락이 교회를 죽이고 분열시키고, 우정을 독살하고, 가족을 파괴한다는 것을 잘 안다. 사탄은 중상모락이 성령의 불을 끄고, 사랑을 죽이고, 영적 쇠신을 단락시키고, 신뢰를 훼손하고, 성도들의 용기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상모락에 대한 해독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아홉 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고, 이웃과 내 자신의 좋은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하고... 이웃에 대한 자선적인 존경심, 그들의 좋은 이름을 사랑하고, 원하고, 기뻐하고 또 그들의 허약함을 슬퍼하고 감싸주는 것.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함을 옹호하고 그들에 대한 좋은 소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종종 중상모락을 즐기는 성향을 보인다. 최고도 작가 토마스 맨튼은 중상모락의 근원이 자기애와 칭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믿었다. 중상모락자는 훌륭한 평판을 가진 사람을 경멸한다. “그들은 재능을 가진 자들을 비난으로 공격한다. 그들의 실패를 더 악화시킨다. 편견으로 그들에게 더 짐을 지운다. 그리고 그들의 명성이 무너진 경우에 그 잔재물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구조물을 세운다.” 중상모락과 비난은 항상 함께하며 밖으로 폭발하기 마련이다. 결코 자신을 향한 내면의 성찰이란 있을 수 없다. “자기애자는 항상 냉혹한 비난자이다.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들은 불타는 열정을 타인을 향한 비난으로 쏟아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

중상모락자의 독성에 찌든 효과

매튜 리 앤더슨은 영혼을 빼앗아가는 중상모락의 본질을 소비의 관점에서 묘사한 신약을 근거로 설명한다. 갈라디아서 5:15은 “서로 물고

삼키기” 경향에 대해 경고하는데, 이는 “참과 화상”과 같은 이빨과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편 기자의 말을 반영한다(시 57:4). 앤더슨은 또한 중세의 한 문헌을 인용하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푸신 회개, 헌신, 연민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중상모락하고, 잡아먹고, 좀 먹었다”라고 썼다.

중상모락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행동 범위를 제한한다. 피해자의 대응을 제한하고 도리어 사회 주변부로 밀어낸다. 그 정도로 중상모락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일종의 빈곤을 강요하는데 그건, 그것들이 애초에 번영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좋은 이름”을 벗겨내는 중상모락, 폄하, 명예 훼손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을 비우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내적 자원에만 전전긍긍하도록 축소시킨다. 중상모락의 주된 목적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건 사실상 “밥그릇”을 앗아갈 수도 있다. 즉, 상대로 하여금 먹고 살 방도를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로 서로를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하다.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중상모락이 쉬워졌을 뿐 아니라 그 증폭의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속도와 빠른 반응을 강조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종종 우연한 중상모락이 조장된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 · 현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감사나눔 공동체: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간증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쉴비치한인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주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11월2일(토) 오후5시 / OC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단장: 김형구 목사 / 지휘: 송규식 목사 / 피아노: 김애영
소프라노: 에스더 김 / 바리톤: 김경태 / 클라리넷: 나민주 목사
Seal Beach Leisure World Korean American Chorale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한글, 영어, 목사, 평신도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323)665-0009, (213)674-7982
Tel (718)886-4400
E-mail lachpress@gmail.com
E-mail nychpress@gmail.com

한국 선교의 미래는 과연 낙관적인가?

(1면에서 계속)

그 이후 한국 선교사들은 170개국에 복음을 전했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30만 명의 신자가 참석한 서울 엑스포로 '74와 같은 전국적인 전도 행사는 당시 선교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기여했다. 1988년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한 후 정부는 한국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면서 KMM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와 중국은 한국 선교사들이 큰 영향을 끼친 곳 중 하나였다.

몽골과 같은 국가에서 그들은 기독교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복음 운동에 관한 2019년 로잔 기사에서는 "1989년에는 기독교인이 4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그 수가 4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국 선교사는 1900년대 대한예수장로회가 세 명의 목사와 그 가족을 산둥성에 파송하면서 시작되었다. 티모시 K. 박은 한국 교회, 하나님의 선교, 세계 기독교에서 이 파송이 "한국 교회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선교 사업"이라고 썼다. "이는 사도 시대 이후 아시아 사람들에게 의한 최초의 아시아 선교였다."

2017년까지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국 내 한국 선교사 수는 약 500명이었지만, 실제 수는 2,000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CT 보고서는 밝혔다. 많은 선교사가 북한과 가까운 지린성에서 사역하며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왔다. 하지만 그해 중국이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 선교사들은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할 기회를 찾아야 했다. 많은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신앙 전파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을 중단한 이유는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문 씨는 말한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교회 성장의 감소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KMM이 침체하였다고 CT에 말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면서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 해외 선교를 떠나는 한국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선교사들은 더 먼 곳으로 모험을 떠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은 미국, 필리핀, 태국,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등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제약이 많은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고령화

한국 선교사 중 20~30대 선교사는 약 7%에 불과하다. KRIM의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선교사의 대다수(67.9%)가 50세 이상이다. 태국 북동부에서 교회 개척자로 사역하다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김은희 선교사(35세)는 이러한 '실버 선교사'는 목회 사역 은퇴 후 선교 현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김 선교사는 23살 때 타문화권 선교에서 전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교회가 얼마나 선교적인지에 따라 그 일을 추구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김 선교사는 말한다. "교회가 더 이상 선교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

지 않고 선교를 위한 기도와 지원, 동원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한국 선교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전통적인 교회 파송 구조도 의도치 않게 선교사 파송 연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선교사가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고 5~6년 정도 걸리는 선교 신학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지만, 교회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20~30대 청년들을 선교 현장에 가까이 파송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미전도종족 복음화에 주력하는 WEC 인터내셔널 박경남 국제 디렉터는 말한다.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박성민 동아시아 담당 부대표는 서구 문화에 비해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효도의 한 형태로서, 젊은 졸업생들은 먼 타국에서 장기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잘 알려진 회사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초교과적으로 2년마다 열리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컨퍼런스인 선교한국대회 역시 새천년 이후 참석자가 급감하고 있다. 전성기였던 1998년, 6,300명이 이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2010년에는 참가자 수가 3,975명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1,403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참석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회 총무인 윤 최 씨는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은 숫자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변화 만들기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한국 교회를 약화시킨 것은 아니다. 일부 지도자들에게는 지난 몇 년간의 사건들이 한국 선교 운동, 특히 한국 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문대원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교만과 오만, 승리주의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유럽 선교사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 이사로 활동 중인 문 목사는 오는 9월 한국 인천에서 열린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앞에서 선교적 성취를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한국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세계 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때라고 문 목사는 주장했다. 일부 지도자들은 음악, 영화, 음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선풍적인 인기인 한류가 선교 사역의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가면 이미 많은 사람이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 그룹의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KCCC의 박 선교사는 말한다.

문 목사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예배와 선교 사역을 결합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씹시티원(Isaiah 6tyOne과 같은 선교 지향적 예배 단체의 탄생은 이 새로운 운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이 그룹은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악기 연주법을 가르쳤다. 리더들은 또 다른 눈에 띄는 추세는 장기

선교는 감소하고 있지만, 단기 선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 말한다.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주일에서 3개월, 1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여름 문 목사의 교회는 일본, 캄보디아, 터키, 탄자니아, 영국 등의 국가에 17개의 단기 선교팀을 파견했다. 해외 단기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도 KCCC는 "이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박 목사는 말한다. 올해 이미 3,000명의 학생과 전임 사역자들을 2주에서 4주간의 선교 여행에 파송했다.

유망한 미래

한국의 선교사 파송 순위는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는 여전히 한국이 강력한 선교사 파송 국가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선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문 목사는 "기성세대가 주장하고 유지해 온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구분은 젊은 세대에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지역 개발, 의료 서비스, 구호 사역 등 다른 유형의 사역보다 전도와 교회 개척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영적인 필요에만 집중하는 대신 지역 사회의 육체적 필요를 돌보는 선교사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2006년 CT 커버스토리에서 문 목사는 많은 한국 선교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취했던 독불장군식 접근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상황에 해당하지만, 젊은 한국 선교사들은 이전보다 현지 교회 및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데 더 능숙해졌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도 '유연한 선교사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 국가와 연결 짓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사역 국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선교한국회의 최 목사는 선교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또한 한국 기독교의 선교 개념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교육, 정부, 피조 세계 관리, 사회 정의 등 삶의 모든 영역이 신자의 선교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선교의 차원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최 씨는 말했다. "우리의 책임은 불을 거룩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인 김 선교사는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기는 큰 힘과 에너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인생의 목적과 의미, 가치를 발견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 시기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것인지에 따라 남은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수십 년 동안 저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by Isabel Ong, CT

목회단상

바르실래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슬픔과 고통속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산 넘고 물 건너 마하남으로 피신할 때 심신이 지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온갖 음식을 쏟아내던 시무이 같은 약한 사람과 지쳐있는 다윗의 곤궁한 마음을 이용해 자기 유익을 구하던 시바 같은 사기꾼이 있는가 하면 급히 도망치느라 지쳐있는 다윗 일행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침구류를 들고 나

와 맞이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마하남에 이르렀을 때에 암논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이 백성이 들에서 시정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삼하17:27-29).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들의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아닐수 없습니다.

바르실래라는 인물은 요단강 동쪽 로글림의 부자 80세된 노인입니다. 길르앗 사람으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던 다윗 일행에게 음식과 침구 등 필요한 일체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항군함때까지 매일매일 끝까지 공궤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함께한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갈 때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가 하면 아들과 함께 요단강 나룻까지 먼길을 한숨에 달려와 강을 건너려는 다윗왕의 평안을 축복했던 바르실래 같이 초지일관하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유익과 이익을 쫓아 달린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리고 가뭇게 등 돌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삭막한 이 시대에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겸손과 헌신적으로 섬겼던 바르실래의 삶을 반추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립자 처럼 아른 거립니다. 바르실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듯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인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생생처럼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왕은 바르실래의 이름다운 섬김에 감동해 환궁할 때 함께 가져다 요청을 합니다. 당신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길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바르실래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 양을 섬기는데 한계가 있기에 아들이 김합이 함께해서 양을 계속 모시고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훗날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래의 감사함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들을 잘 보살피라고 유언까지 합니다. 받은 은혜도 감사해야하지만 받은 은혜를 배풀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25:34-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바르실래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 믿음, 겸손, 순종, 헌신, 희생 그리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섬김과 자녀의 신앙까지 돌봄입니다.

cefyeo@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 style="text-align: center;">감사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 style="text-align: center;">나성순복음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lalocusa@yahoo.com / www.laloc.com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든단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 style="text-align: center;">남가주사랑의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찬양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장소:KDC, 침명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 style="text-align: center;">대흥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0) 719-2244, www.dhpc.org 15411 N. Figueroa St., Gadena, CA 90248</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양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평안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 381-2202, www.mjp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 style="text-align: center;">복음장로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5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 style="text-align: center;">베델한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양회중: 오전 9:00, 11:00 일행예배: 오전 11:50(영양):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949) 854-4010 / behel@hkc.org / www.h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 style="text-align: center;">세계소망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 style="text-align: center;">세계선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베델교회중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 388-1927 / www.wmca.com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3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h4 style="text-align: center;">실비치 사랑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브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p>	<h4 style="text-align: center;">열매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23) 737-3008, Ce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 style="text-align: center;">엘피스지역원</h4> <p style="text-align: center;">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화 노인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 style="text-align: center;">은혜한인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안락예배: 오전 11:50(영양):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 446-6200,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 style="text-align: center;">주님세운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4 style="text-align: center;">좋은마음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신현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영양/청년): 오전 11:45 송-고령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714) 646-9259 www.socalassembliesung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h4 style="text-align: center;">코너스톤 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 530-4040(CH), www.cornersstone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 style="text-align: center;">토렌스조은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 청년예배: 오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분당)</p> <p style="text-align: center;">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 style="text-align: center;">평강교회</h4>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목사 : 송규관</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용모예배(성/유명):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오후 9:30 목요 기도전도: 오전 9:00 TEE-성경읽는행(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p> <p style="text-align: center;">Tel: 213-383-9136, pyongjangu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 style="text-align: center;">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깍두기는 싫어요!

요즘 K-푸드 열풍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 식품인 깍두기가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깍두기를 좋아합니다. 깍두

기는 뭐랑 먹어도 다 잘 어울립니다. 특별히 설렁탕은 깍두기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설렁탕집의 깍두기는 유난히 맛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깍두기 볶음밥도 별미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깍두기는 '배추김치'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깍두기로 볶음밥을 만드신 이유는 배추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었고, 깍두기 볶음밥이 맛있었던 이유도 볶음밥 위에 계란 후라이(Fried Egg)가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 놀이에도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동네 축구를 할 때, 우선 운동을 잘하는 두 아이가 주장이 되어서 남은 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이 먼저 뽑히고, 실력이 없고, 게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는 마지막

까지 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덤으로 뽑힌 아이가 '깍두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깍두기의 심정을 아십니까? 끝까지 누가 나를 뽑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깍두기의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맨 나중에 덤으로 뽑혀 자존심 상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깍두기'의 열등감을 아십니까?

깍두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과 어떻게 하든지 함께 놀기 위해 애쓰는 깍두기의 애처로운 마음을 아십니까? 팀이 이겨도, 쳐도 아무도 깍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고 서운해 하는 '깍두기'의 자괴감을 아십니까? 그 당

시 동네 아이들은 이렇게 복잡한 '깍두기'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렸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 '깍두기'라고 불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깍두기'가 되어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깍두기' 제도는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진 아이, 실력이 없는 아이, 어리고 약한 아이도 따돌리지 않고 함께 놀겠다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깍두기'는 주로 나이가 어린 아이입니다. 형들과 함께 놀고 싶은 어린 동생들입니다. 형들의 놀이에 오히려 방해되는 어린 동생들을 '깍두기'로 뽑아서 같이 놀아 주었던 것입

니다. 깍두기와 함께 설렁탕을 먹고, 깍두기 볶음밥을 먹으면서 '깍두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배려해 주신 하나님, '깍두기'였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전 선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깍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깍두기'를 좋아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깍두기'가 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진정한 하나님나라의 '깍두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한 교회)



가끔 부부 싸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큰일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존심에 상하거나 욕심 질투심 이런 것으로 싸웁니다.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토를 더 넓히려는 싸우는 전쟁입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전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이념 전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매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 나의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내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과 싸우려고 최후로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네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악을 누르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네요.

이 마음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전쟁도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최후 승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최고로 알고 사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잘 먹어야 하고 나는 건강하면 되고 나는 대우받아

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최고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내가 좋은 것, 비싼 것, 가지고 있다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 가치가 더 높아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말하고 자존심, 욕심, 질투심으로 항상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런 영에 사로잡히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갈등하다가 서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네요. 이

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꿈틀거리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즉각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에요. 이전에 있던 못된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참 크리스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아마겟돈과 개구리 영이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깨어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씀이네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말세에 신앙생활 잘하는 말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세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세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에게 3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그리스도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복음 15:5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네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율은 일들이 다 나를 감싸줄 예수님의 옷이 되는 것이네요.

세 번째는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라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다니셔도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사실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네요. 명품 옷으로 몸을 가렸지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 바로 벌거벗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지금까지 대접 하나하나를 쏟을 때 땅과 바다와 해와 달 별 모든 자연계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재앙으로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은 땅이나 바다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천둥 번개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아주 끔찍한 마지막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삶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인류 멸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하라하신 이유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 있는 것이네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재앙을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hichristian9@gmail.com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

요한계시록 16:13-17

는 것이네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반대로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너의 본능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네 욕심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유혹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개구리 영이 하루 종일 내 안에서 개굴개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개굴개굴 너만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날마다 옆에서 개굴개굴하는 것이네요.

이런 개구리 같은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망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이 망하고요. 이런 개구리가 내게 있는지 늘 체크하셔야 하며 살아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정신 차려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네요. 도적이 올 때 전화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적이 올 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아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도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첫째,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기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이네요. 날마다 우리 안에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네요.

두 번째, 옷을 입어라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우리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크리스천들도 투표해야 할까요?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투표해야 할
영적 & 현실적 이유들

여러분이 꼭 투표해야 하는 결론적
이유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인 "미국의
생사"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손들의
미래의 꿈, 여러분 자손들이 어떤 내일
을 갖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
니다. (잠29:2, 잠 14:34, 시33:12)

투표와 크리스천 신앙실천의 관계:

투표는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
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시민들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세계 국가
들의 역사를 통해 확연히 볼 수 있습니
다.

투표는 나의 가치관을 대표할 Representative
를 뽑는 최고의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크리
스천들에게는 세상의 악습들을 선한
범으로 CHANGE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주어지는 시민 특혜권리
행사입니다. 어떤 개인이 투표하고
안 하는지에 따라, 투표의 결과물은 하
늘과 땅 차이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들에게까지 이미 체감하시는 것처럼 우
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투표는 시민들이 백악관과 국회의 진
짜 왕(King) 입을 악한 정치를 해온 정
치인들에게 확실히 알리는 경고장이며,
하나님 법을 경외하는 정치를 펼친, 외
로운 영적 전투를 해온 정치인들에게는
격려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리더들
이 왕이 아니라는 정치적 사실은, 청교
도 정신으로 세계 최대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설립한 건국 아버지들이 만장일
치로 결정한 역사적일이며 Declaration
of Independence와 미국 헌법에도 선명
하게 적힌 사실입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많은 성경 말씀 들
의 인용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롬 13장 말씀입니다.

"3. 관원들은 선한 일을 하는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
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
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
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은

하는 자니라." 롬 13:3-4.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는게 너무 중요한 마지막 이유!

로마서 13:3-4절 말씀처럼, 정치인들
의 가장 기본적인이고 큰 의무 중 하나
는 사회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
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시
민들에게 선을 행하는것을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어, 악이
사회에 퍼지는 것을 통제하는 일" 인데,
이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의무를 잘 감
당했는지를 판단(재판)하는 것이 바로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결론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하
게 "악"을 "선"이라고 거짓말한 정치 리
더들에게는 그들을 낙선시킴으로 벌을
주며,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 선
한 싸움을 한 정치리더들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부치며 앞으로도 선한
싸움 열심히 싸워달라는 형제, 자매들
된 천국 시민의 부탁입니다.

만일 크리스천들이 투표하지 않는다
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단
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는 않을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을 아는 크리
스천들이 투표를 안해도, 하나님을 모
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투표해
야 한다고 몽질뿐 아니라, 반 기독교 정
치인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크리스천들이 투표를 안 한 결
과, 또는 잘못 알고 잘못 투표한 결과물
때문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까
요? 그 영향을 받게 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내가 투표 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독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후보자들의 정
책이 좋다고 생각하여, 반기독교 후보
자들을 뽑고, 그들을 응원한다.

내가 투표를 안 해도, 대선의 결과물
은 내가 속한 커뮤니티(신앙공동체를
포함)에도 엄중해온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후보자들이 뽑혔을 때의 결과물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속속히 엄청난 영향력

을 끼쳐왔으며, 계속 끼치게 될것이다.
내가 투표를 안해도, 대선의 결과물
들은 나와 연결된 모든 것에 더 큰 영향
을 끼친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 신앙에 반하는
것마저도 해야 하게 할 것입니다. 반기
독교적인 후보자들이 뽑히면 악법들이
지금처럼 줄지어 나올텐데, 투표를 안
한 나와 내자녀, 가정, 교회와 신앙생활
등 모든 삶의 분야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것입니다. 이는, 지난
16년간의 캘리포니아와 미 전역의 흐름
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임을 아
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이
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투표는 크리스천들의 거룩한 책임이
며 시민의 고귀한 권리행사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곧 여러분의 신념이
고 신앙 가치관을 대표할 것입니다!

모든 선거는 개인, 가정, 지역부터 국
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
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모두
참여할 때 번창합니다.

로마서 13:3-4절의 말씀이 이번 대
선 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자녀들
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악"
이 "선"으로 주장되어서는 안 되겠
습니다. Enough is Enough!

악법을 "선"으로 가장한 이들은 늘 자
신들이 약자를 가장 많이 돕는 것처럼
스스로를 소개하고 꿈과같은 파라다이스
를 약속합니다만, 거짓임은 현실을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반기독교자들의 돈으로 매수된
CNN, NBC 같은 주류미디어와 언론들
또는 한국 주류언론들만 믿으시지 마시
고,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검증되고 확
인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선은 영적 전쟁의 연장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가 더 깊은 정체
성 혼돈으로 우울증과 자살률만 높아지
고 있는 이때, 투표로 필요한 CHANGE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
난 6개월 넘게 미국 주요단체들과 협력
하여 후보자들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정
리한 그들의 정치전력을 검증하고 확인
된 내용 들로 제작한 한인 크리스천 투
표 가이드라인은 TVNEXT.org 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현재 성경원본은 없다고 들었는데 사본인 성경을 영감되고 완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 캐나다의 신학생이

성경사본

A: 좋은 질문입니다. 사본(寫本)이 무엇인지 먼저 확실하게 정리해
야 합니다. 사본이란 원문의 언어 그대로 똑같이 필사(筆寫)하는 것으
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역본(譯本)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재 보존되
고 있는 사본들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직접 원본을 손으로 베끼는 것
을 필사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쇄기술이 없
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존하고 전파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필사하여 사
본을 생산하였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본 제작 즉 성경을 필사할 때는 성경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
하기 위해 신중하게 필사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탈
무디스트'라 하는데 이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항상 같은 복장을 입어
서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줄과 줄 사이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여백만 주어 누군가 추가시키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였
습니다. 또한 우리가 숙제를 할 때 흔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워서 읊
겨 적는 것과는 다르게 철대로 외워서 적지 않고 한 단어씩 소리 내어
읽으면서 적었으며,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적기 전에는 펜
을 깨끗이 닦고, 목욕을 하고 적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적
을 때에는 왕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사를 마
친 후에는 단어와 글자의 수를 원본과 대조해 보아 그 숫자가 일치하
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사본은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B.C. 150년경의
것입니다.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맛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A.D. 900년경에 필사된 성경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해사본 발
견 전까지는 마지막에 기록된 B.C. 400 경의 구약성경 말라기서와 맛
소라라 사본 간에 1300년이나 연대 차이가 나서 성경의 신빙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구약의 변질에
대한 많은 의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맛소라 사본과 비교하였으
며, 성경의 내용이 1,000년의 세월 동안 보존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내
용에 변질이 확실하게 없는 것인지, 의문이 해결될 것인지 많은 사람
이 주목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사해사본의 이사야서와 맛소라 사본의
이사야서를 비교해 보았는데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해 약 1,000
년 동안 거듭 필사가 이루어졌는데도 그 내용이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
이 보존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해사본은 그 원본과의
간격을 1,000년이나 좁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무런 변질 없이 보존
되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세계 곳곳에 번역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2,30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언어로 번역되었
다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역 한
글성경, 현대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등이 있고, 영어 번역본에도 KJV,
NIV, ESV, TEV, NASB 등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은 내용에 문제는 없으며,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
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원본은 없지만 현존하는 많은 사본이
있으며, 성경 역사가들은 본문 비평을 통해 오늘날의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원작자의 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새로 신설된 학위과정

Ph.D. in Financial Economics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BA)

Master of Fine Art (MFA) / Doctor of Fine Art (DFA)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배로운교회)



“그리스도안에서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하며 교회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바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많

은 스승이 있었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성행했던 도시로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철학적 사상과 유대 교적 전통이 스며들어 있었습

니다. 이로 인해 여러 스승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 가르침은 교회에 부작용을 낳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스승의 가르침은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사람들 사이에 파벌을 조

장하고 분열을 일으켰고 영적 성숙을 저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회복 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꺼내 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닌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고 영적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스승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스승은 지식만 전달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복음이 자신이 먼저 맞고 즐기며 누리면서 영적 자녀들을 양육 합니다. 이런 양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양육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스승들과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스승들은 복음을 맛보지 않고, 즐기 않고, 누리지 않은 채로 지식으로만 가르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고,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가르침에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 전달만으로는 복음의 생명력을 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가장 시급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임

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는 자신이 먼저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그 복음을 통해 자녀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양육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양육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안에서의 아버지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라 복음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으로써 성도들을 복음으로 젖어있게 하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아버지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명산 ‘태산’의 신임환경미화원은 ‘로봇개’

중국 산둥성의 명산인 태산에 쓰레기 운반을 위한 4족보행 로봇개가 시험 투입됐다. 로봇개는 완전히 충전하면 4~6시간 동안 작동하며 최대 120kg의 짐을 싣고 45도 이상의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태안일보 등에 따르면 태산문화여행객집단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쓰레기 운반용 로봇개를 태산 정상 주변의 흥문, 중천문, 남천문 일대 등산로에 투입했다. 이 로봇개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업체인 위수과기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니트리 B2 산업용 4족 로봇’이다. 지형 적응력과 안정성, 균형 능력이 뛰어나 미끄러운 곳이나 극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나뭇가지나 40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

로봇개는 동행한 직원의 조작으로 작동하는데 “저는 위수과기에서 왔고 지금은 태산의 쓰레기 청소 도우미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함께 노력해서 태산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등 음성 안내도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시험 결과 로봇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지만, 쓰레기 탑재 상자가 너무 높고 쓰레기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완전한 구간보다 가파른 구간에서 안정성이 떨어졌다. 태산문화여행객집단은 단점들을 보완한 뒤 본격 투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산 관광객과 누리꾼들은 “로봇개가 사람을 태울 수는 없냐”고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SNS에 “로봇개가 웅장한 태산에서 운반자 역할을 한다. 인류를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의 호응을 얻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양사언의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에 등장해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태산은 중국에서 인기 관광지다. 지난해 86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총 2만4000t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형과 등산로가 복잡한 데다 등산로와 우회로가 사람들로 붐벼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벼랑끝 중국 경제, 2300조원 투입해야” 중관변학자도 대규모 부양책 요구

중국 관변학자들도 중국 경제를 살리려면 10조 위안(약 1916조원)에서 12조 위안(231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중국거시경제포럼 행사에서 국제와 지방특수목적채권, 예산

외 국제 매각을 통해 내년에 12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장 부소장은 지난 5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산둥성 심포지엄에서 연설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장 부소장은 “불충분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대응정책을 사용할 때는 정책과 시간의 싸움”이라며 “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락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비용이 절감되고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경기부양 규모가 중요하다”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는다면 정부 지출 연간 성장률(재정적자율)은 7% 수준이 돼야 한다. 여기엔 12조 위안 규모의 정부 부채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도 지난 18일 SCMP 인터뷰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다”며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10조 위안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원장은 “중국 정부는 적자와 부채에 대해 매우 신중했지만, 이제 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때로는 고용량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고려해도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100%이고 미국의 130%, 일본의 26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간 방패’로 써”

이스라엘군(IDF)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는 가자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가자 주민 라메즈 알-스카피 등 IDF에 의해 인간 방패로 내몰린 팔레스타인인 구급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스카피는 IDF가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자신을 가족과 분리해 구급한 뒤 인간 방패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초 자신이 살던 슈자이아에서 빈집과 터널 등지에 억지로 들어가야 했다며 자신의 역할은 하마스의 총격과 부비 트랩으로부터 IDF 병력을 보호하는 인간 방패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IDF-하마스 간 교전 때도 자신이 인간 방패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가디언과 인터뷰한, 신원을 밝히지 않은 다른 2명의 팔레스타인인도 IDF가 자신들을 가자 지구의 미확인 주택과 터널에 먼저 들여보내는 등 인간 방패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반체제 재향 군인 단체인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BTS)와 인터뷰한 IDF 내부 고발자들도 IDF에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폭로했다.

IDF 저격수 출신인 BTS의 나다브 와이먼 국장은 가자 지구에서 수백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인간 방패로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는 의심스러운 장소를 수색할 때 팔레스타인 구급자들이 쓰였다면서 인간 방패로 사용된 팔레스타인인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행태는 명백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이스라엘 국내법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IDF는 현장에서 군의 명령과 지침을 통해 민간인을 위험한 군사 임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인이 인간 방패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관련 당국에 검토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파병, 근거 없는 소문”... 북한 당국 첫 반응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반응이 나온 건 처음이다.

유엔 주제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와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 국가가 주장하는 주권 국가 간의 이른바 무기 이전(군축·국제안보 관련) 토론 주제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이날 언급은 파병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첫 반응이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가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약 1만1000명의 정규군을 가까운 시일 내 러시아군에 함께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 대표도 이날 유엔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잇따른 보도를 두고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사방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추진 발언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 중국, 북한을 ‘부기맨’(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들먹이는 귀신을 일컫는 말)으로 삼아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지만 북한의 군대 파견은 우리마저 놀라게 했다”며 즉각적인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유예기간 끝”... 홍콩, 일회용 플라스틱 못 쓴다

홍콩 요식·소매업계에서 22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1일(현지시간) 더스탠더드 등 홍콩 현지언론에 따르면, 22일부터 홍콩 식당에서는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기나 컵, 음식 용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호텔에서 무료 세면도구와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를 비치하지 않는다.

홍콩 환경보호청은 이날부터 단속에 나선다. 위반시 서면 경고를 하고, 해당 업체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 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7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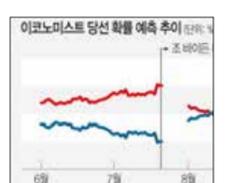
홍콩의 플라스틱 금지 조치는 지난 4월 시행됐으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환경보호청은 4월 이후 케이터링 업체가 일회용 수저 3000만 세트의 사용을 줄였고, 접객서비스 부문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이 80%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비플라스틱 식기 공급업체가 60여개에서 150여개로 증가했으며, 비플라스틱 대체 제품은 1000여 품목에서 1700여개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플라스틱 없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인단 276명 확보 승리”... 판세 역전 진단 이어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6명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당선 확률 예측에서도 트럼프는 50%를 넘어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질렀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21일 “미국 대선 예측 시뮬레이션에서 트럼프가 276명, 해리스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54%로 지난 8월 이후 두 달 만에 해리스(45%)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와 미국 컬럼비아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시뮬레이션은 전국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별 경제 지표, 인구 특성, 과거 선거 결과 등의 변수를 반영해 선거인단 확보 전망치의 중간값과 당선 확률을 추산한다.

트럼프는 당선 확률에서 지난 8월 19일(48%)부터 줄곧 해리스에게 밀렸지만, 정확히 2개월 만인 지난 19일(51%) 역전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기준 전국 여론조사 평균으로는 트럼프 지지율이 47%로 해리스(49%)보다 낮지만, 지역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당선 가능성은 트럼프가 더 크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경합주 7곳 중 5곳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전망했다. 트럼프의 주별 승리 확률은 애리조나에서 66%,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각각 63%, 펜실베이니아 58%, 위스콘신에서 55%로 예측했다. 해리스는 네바다(52%)와 미시간(51%)에서만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섰다.

미국 통계 전문가 네이트 실버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50% 이상으로 평가했다. 그가 고안한 선거 예측 시뮬레이션 ‘실버 블레틴’에서 가장 최근인 지난 17일 기준 당선 확률은 트럼프가 50.2%, 해리스가 49.5%로 나타났다.

개혁신의 윤리학(4)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V. 창조의 규례(creation ordinance)와 십계명의 관계(2)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문자적으로 창조 규례를 반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창조규례가 7계명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창세기의 창조 규례에서는 결혼의 연합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제한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결혼의 연합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다”(창 2:24).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한 창조의 규례를 확정하셨다.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원래의 창조의 규례를 기준으로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4-6). 예수님의 결론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

본래 창조의 규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허락된 것을 의미한다.

제7계명 (출 20:14; 신 5:18), 판례법 (출 22:16-17; 신 22:28-29), 성결법 (레 18장; 20:10-13), 모두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 동일한 표준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창조의 규례와 동일하다.

토머스 왓슨 (Thomas Watson)은 “제7계명인 결혼 생활의 준수는 탐심을 금하는 10계명도 이 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과도한 욕망과 성적인 부도덕은 결혼의 연합 (marriage bond)을 깨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규례는 창조의 규례, 모세의 언약하의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인간이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삶의 규범적인 원리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C. 안식 (Sabbath)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시니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단지 동산에 두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동산에

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사용되었다.

창 5:29에 있는 “안위” (relief from our work)라는 단어는 창 2:15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확증한다. 라멕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창 5:29a). “노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안식하다”(rest)로 번역된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 노아를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 수고



서 “쉬고” 있었다. 창세기 2장 15절의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서 쉬게(rest)하시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로스 (Ross)는 이 구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두시다”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안식”(lanu'ach/לָחַץ)의 단에서 유래되었다. 이 곳에서는 “두시다”라는 의미는, “안식”을 함축하는 단어이다. 창세기 2:15는 안식일의 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다. (Allen P. Ross, Creation & Blessing, 124)

창세기 2장 15절이 안식과 관계됨은 출애굽기 20장 11절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사용된 “두시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를 곁에 일하며 수고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식하게 하리라”고 말했다 (창 5:29).

에덴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일곱 중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정하셨다(창 2:3).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원래 안식일이 피조물을 위해 마련되었음을 확증해 준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출 20:11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3을 כָּדָּ, וַיְבָרֵךְ אֶת הַיּוֹם וַיְקַדְּשֵׁהוּ וַיְבָרֵךְ אֶת הַיּוֹם וַיְקַדְּשֵׁהוּ 라고 인용하였다.

제4계명은 출 20:8-11에서 이렇게 말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 창 2:3의 창조 규례를 명백하게 의존한다. 제4계명의 안식일의 규례는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임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마 12:8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헬라이어 원문은 “Κύριος γάρ ἐστι καὶ τοῦ σαββάτου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여기서 “is”의 현재시제(ἐστι)를 사용하며,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통치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이심을 강조한다. 막 2:27-28,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2. 신약성경에는 예배를 위해 구별된 첫날이 있었다.

“그 구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받중까지 계속하매”(행 20:7).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고전 10:16).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매 주의 첫날”(고전 16:1-2)에 헌금을 저축하라고 부탁했다.

3. 히브리서 4:9-10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창조 (출 20:11)와 구원 (신 5:15, 출애굽 사건)에 근거한 안식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한다. 두 가지 측면이 첫째 날 안식일을 가리킨다.

“안식일의 쉼”(9절)이라는 단어는 헬리어, σαββατισμός, (sabbatismos)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를 음역하는 것만으로도 안식일 σάββατον (sabbaton)이라는 단어와의 연관성이 분명하다.

BAGD에 따르면 이는 “안식일 휴식” 또는 “안식일 준수”를 의미한다 (Walter Bauer, William F. Arndt, F. Wilbur Gingrich and Frederick W. Dank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히브리서 4장 9절은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곳이다. 그리고 동사 형태 (sabbati)는 칠십인역에서 발견되며 안식일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

예수님께서 안식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다 (마 28:1ff; 막 16:2ff; 누가복음 24:1; 요한복음 20:1,19).

심지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다 (요한복음 20:26).

4. 주일 (계 1:10)은 초대교회는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구약의 안식일)로 돌아가지 않았고, 실제로 특정한 날을 그리스도인 안식일로 지켰다.

크리스천이 기독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이루신 창조와 구속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현재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며, 미래에 온전히 성취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은혜의 원천이 된다.

KHL0206@gmail.com

<h3>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h3>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은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h4>뉴욕갯시메리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영아 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6:00(토)</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전 11:15 영아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55(월-토)</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3주)</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아예배(토):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차별예배: 오후 6:00 주일차별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12:20분 새벽기도회: 오전 6:45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h4>온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오전6:0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icloud.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3>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리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일 셋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목) 오후 7:3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건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전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누스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신앙칼럼

고난의 현장을 찾아오시는 예수님(Jesus Comes to the Scene of Suffering)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큰 놀이 일며 거센 파도 앞에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 배가 곧 전복될 지경입니다. 갈릴리바다는 지형의 특성상 험준한 산과 골짜기 사이로 세게 북동풍이 지나가서 오는 남서풍이 세게 불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세속대야의 물이 소용돌이치는 거센 물결같이 거센 파도와 물결을 만들어 내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의 특성상 지형학적으로 이런 돌풍이 갑자기 불 때가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런 갈릴리지역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이런 제자들을 갈릴리지역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Life is a Struggle)

인생은 마치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였고, 다윗은 이 세상을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3:4) 그러나 누구나 한 뚜껑 열고 이야기 해 보면 어찌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태우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배도 거센 파도를 만났습니다. 사도바울이 탄 배도 유라골라 태풍을 만나 파손했습니다. (행 27:14,15)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늘날은 평안했지만 언제 거친 파도가 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풍랑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도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난의 파도타기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Jesus Came to the Scene of Suffering)

고난의 바다에서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난 파도 앞에는 그 어떤 수고도 노력도 기술도 경험도 소용

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노한 풍랑 앞에서는 무서워서 절절쩍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 14:25)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마 14:27) 여기 "나니"라는 말은 바로 "나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던 바로 "나야"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아빠가 나타나서 "아들아! 딸아! 놀라지 말라 나 아빠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센 파도와 풍랑을 만나 밤새껏 혼비백산한 제자들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을 뚫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때 항상 감정을 있는 대로 여과 없이 표현해서 일을 저지르는 베드로가 단순한 감정을 있는 데로 표현하여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을 확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 14:28,29)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자기를 삼킬 것 같은 파도를 짓밟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 위를 걷는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난의 파도를 밟고 걸어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므로 풍랑이 이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 11:1)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파도를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파도도,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Focus Your Eyes on Jesus)

믿음을 키우려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간 베드로가 잠시 후 어떻게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게 됩니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듭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 14:30)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갈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 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 14:31)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최대의 적입니다. 두려움이 엄습 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황하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의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쪼그라듭니다. 의심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둘로 갈라진다.(divide)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 1:6)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히 12:2) 베드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풍랑을 바라볼 때 실패했습니다. (마 14:29,30)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은 마치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파도가 칠지 돌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늘 고난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눈을 떠서 바라보면 분명히 나보다 먼저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계십니다. 먼저 고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고난과 풍랑 속에서 눈을 들어 나보다 먼저 고난을 해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34) '친정집'

모임에 새로운 분이 참석하는 경우,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집 오는 마음같이 계속 온다고 하는 여성들이 여럿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민자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힘겨운 상황이라, 가정집 거실에 모여 예 배드라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따뜻한 음식과 푸근한 장소를 찾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집' 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친정집'은, 결혼한 여성들에게 고단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으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꼭 여성에게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토속 음식 식당중에 '친정집 돼지 곰탕'이나 '친정집 추어탕'이라는 간판들이 걸리는 것을 보아도 그 단어가 주는 친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남자운동선수들 간에는 전에 소속된 단체를 '친정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한 여성이, 남편과 헤어지고 더불어 외아들을 잃게 되는 쓰라림을 겪은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무척이나 힘들어하던 중,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었고 또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 새롭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면서 환한 얼굴로 바뀌었구요, 남성들의 경우, 혼자된 후에는 홀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만큼 성냥불 같은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맥을 이어가다가 신실한 여성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열심을 다해 믿음생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이 헛되지 않구나하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느슨해진 신앙의 줄을 단단하게 붙들어 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한 발 더 나가 병원이나 교도소 혹은 프로 운동팀에 있는 채플린십(chaplainship, 교목, 원목등)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단체에 채플린이 있는 이유는, 병원이라면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곳이고 교도소에는 회회와 묶임이 있는 곳이고 프로운동팀이면 승리라는 역압 속의 긴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부모들 역시 사회적 고립 속에 단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에 다양한 단계의 영적, 정서적, 관계적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끼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세심하게 경청한 후 대화를 이어갈 때 그들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의 발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할 때 마음의 평화와 믿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상황에 맞는 영적 돌봄을 통하여 신뢰 속에 동반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해 여성에게는 친정집같이 남성들에게는 누님매같은, 훈훈하고 끈끈한 정이 있으면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존재하는 굳건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1)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jok, Malsom, Donggok, Bannell, Boston, PCA, Alkasa, Anger, Yeongsang, Killin, Winton, Tacoma, and other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잘 되게 하는 사람”

가을이 되면 누구나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사색하는 사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을은 우리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가을의 정점에 서게 되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온 세간들에 대한 회고적 생각과 오늘에 대한

조용한 해석,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에 가슴에 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게 하는 사람>이란 명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소

망합니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강령도가 클수록 잘 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잘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강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로 혹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잘 됨>에 대한 소망의 강도가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자 하여도 잘 되는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생각 하는 만큼 그리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잘 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하노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요한이란 분을 생각하면 큰 도전을 받고 목회의 철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잘 되게 하는 목회를 해야 지’라는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해드리는 사역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을의 정점에서 문득 <잘 되게 하는 사람>이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되게 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은 물론 이웃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교인들이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일에 서투러서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 되게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 잘 되게 하는 사람들 보다 잘못되게 훼방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의 행태를 보

면 서로 잘못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아픈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분명 한 것은 남을 못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축복의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잘 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잘 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라는 잘 됨에 대한 개척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을 잘 되게 하려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잘 되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교인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직장을 잘 되게 하는 직장인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잘 되게 하는 식구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잘 되게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

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되게 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한결을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며 언제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으며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우리 모두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잘 되게 하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잘 되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하기를 내가 간구 하노라”(요삼서 2절) cyd777@hotmail.com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 성황

선교사자녀 장학생 모집은 11월 1일부터~11월30일까지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14일(월) 로스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제5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20명이 선수로 참여했고, 벙컷에는 150여명이 참여해 해외 선교사에 대한 관심과 차세대 젊은 크리스천 육성을 위한 기획과 취지에 동참했다. 골프대회는 OC교협 회장이며 골프대회 명예부대회장인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담임)의 메시지와 기도, 경기위원장 잔송 장로의 경기규칙 설명 후 낮 12시에 샷건으로 시작한 이날 경기는 OC한인회, OC교협, OC장로협의회, OC한인상공회, 한미지도자협의회, 갯블레스미션코리아 등 지역사회 각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해

다섯 번째로 열리는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모금을 행사를 축하하며 함께 했다. 저녁 만찬과 벙컷에서는 신용 회장의 사회로 1부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맡은 OC증경이사장 신원규 목사(좋은마음교회 담임)는 선교사자녀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연합회에 대해 격려하고 골프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에게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됨을 높이 칭찬했다. 2부 순서는 연합회 소개와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증경 이사장 유우경 권사가 사회를 맡아 연합회의 역사를 소개하고 증경회장단과 현 임원진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선교

사자녀들의 소감과 감사인사 영상을 함께 보고, 조용중 선교사(KWMC 사무총장)가 선교사의 헌신과 어려움에 대해, 선교사 자녀들의 고초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순서로는 이사장 민김 권사와 회장 신용 집사의 사회로 골프대회 시상과 경품추첨하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시상이 있었다. 선교사자녀 장학생 모집은 연합회 홈페이지(www.ockca.org)에 게시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메일(ockca1@gmail.com)로만 접수한다. 장학생 시상식은 12월 9일(월) 저녁 5시에 은혜한인교회 친교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연합회는 그동안 네 번의 골프대회와 한 번의 합창제를 통해 197명의 학생들에게 98,500불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주소: ockca1@gmail.com, 유튜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 성료

‘떠남은 뷰티풀...’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총장 이상명 박사)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주관한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가 지난 15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이패밀리 송길원 대표, 한국영성노년학연구소 김기철 소장, Vision Mentoring International 살롬 김 대표, 그리고 Well Aging Mission 김재홍 대표를 강사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남가주 지역 다양한 교회의 사역자와 시니어 성도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세미나에 앞서 김병호 미주복음방송 대외협력 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송병일 목사(텐버안인기독교회 담임)도,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성경봉독, 송길원 목사 설교,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의 격려사와 축도로 진행됐다. 예배에 이어 CPU 이사명 총장의 인사와 감사 소개, 그리고 이영선 사장의 축사 후,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갔다. △엘레이징: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이란 제목의 첫 강의에서 송길원 목사는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이야기 하기에 떠남 또한 아름답고 품격 있게 맞이할 수 있다. 행한 교회의 사역자와 시니어 성도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세미나에 앞서 김병호 미주복음방송 대외협력 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송병일 목사(텐버안인기독교회 담임)도,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

들어가며, 노화현상과 함께 찾아오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 상실을 겪을 때 점차 자신의 고유함과 고귀함을 잃어가기 쉬운 현실이다. 내 안의 고귀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고유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강의는 살롬 김 박사가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서 주신 비전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멘토링 방식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케 함으로써 비전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목사는 네 번째 강의에서 현재 노인 사역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했다. 김 목사는 체계적인 시니어 사역 이론과 신학이 미비 되어 있고, ‘노인 사역’ 이미지가 지배적인 현재 노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현실에서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시니어 사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성으로 깊어 가는 시니어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자로 설 때 교회는 큰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 참석자들

인/터/뷰

김정원 박사(Dunamis Sophia University D.Min 프로그램 디렉터)

오는 11월 5일(화)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10분까지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일일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원 박사(D.Min 프로그램 디렉터/새연약교회 담임)가 본지를 방문했다. 김 박사는 지난해 실천신학 분

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을 목표로 설립된 Dunamis Sophia University(이하 DSU/대표 이윤호 박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미나에 관해 들려 주었다.

△ DSU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DSU는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DSU는 캘리포니아 사립 고등 교육국(BPPE)의 승인을 받아 캘리포니아에서 종교 특례

Dunamis Sophia University(DSU)는 실천신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을 목표로 설립된 신학 대학으로, 미국 미네르바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실천신학의 적용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SU는 ‘실천신학의 적용 극대화’, ‘학문과 현장의 긴밀한 결합’, ‘학문과 영성의 조화’, ‘도제식 교육 방식’, ‘이동 캠퍼스를 통한 글로벌 학습’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업, 국내외 이동 캠퍼스, 멘토링, 개인 지도 방식, 집중 수업 및 논문 지도를 병행한 학기 운영 등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아, 신학 박사(Th.D.) 및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신학연맹(ATA)에 가입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 향후 철학박사(Ph.D.) 학위 수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향하고 있는 교육방식이 있으신지요.

△교수진들과 학위 등을 소개해 주십시오.

DSU의 교수진은 풀러신학대학원, 남침례교 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명문 신학대학에서 M.Div., Th.M., Ph.D., D.Miss. 등 최고 수준의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들로, 이들은 학문적 깊이와 현장 경험을 겸비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DSU에서 성경적 치유학, 목회학, 영성 상담, 제자 훈련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DSU는 미국과 한국을 넘어 중앙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 분교 설립을 추진하여,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기위해 준비됐고, 저희 학교가 지난 해 신설된 학교이어서 학교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세미나에 박성근 박사(새누리 교회 담임), 이윤호 박사(작은불꽃 선교회 대표), 이윤호 박사(두나미스 영성상담치유 연구원 원장) 그리고 제가 강사로 서게 됩니다.

△본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 준비한 강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일반적인 제자 사역의 기초



김정원 박사

비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김박사는 “모든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문을 닫기도 하는 이 시점에 학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많은 지인들이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출되어 지기를 소원하며 실천신학을 중심한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려한다”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714-732-3355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열방을 향해 나아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 도입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 제공할 터”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일 공개세미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이미 한국에서는 몇 차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첫 번째 열리는 세미나

적인 것을 세미나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과 제자들의 인격을 향상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TEACHING, TRAINING, BUILD UP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준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실버미션 20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찬양축제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일 목사)는 10월 27일(주일) 오전 5시 뉴욕센트럴교회에서 뉴욕실버미션 20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찬양축제를 개최한다. 뉴욕실버미션 찬양선교합창단, 뉴욕센트럴장로교회 찬양대, 뉴욕 장로 연합 성가대, 뉴욕뉴저지 Pan Flute Mission, 풍아일랜드 성결교회 찬양대, 프라미스 국악 찬양선교단이 참여한다. 이날은 뉴욕실버선교회 제38기 수료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도 드린다.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 문의: 516-387-9940

뉴욕교협, 정기총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10월 29일(화)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하연행 목사 시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279-1414

뉴저지 연합 큰 기도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한인목사회, 뉴저지은퇴목사회, Love NJ가 연합하여 11월 1일(금) 오후 7시30분 필그림선교회(양춘길 목사 시무)에서 뉴저지 연합 큰 기도회를 연다.

▲ 문의: 201-638-1627

제3회 A01 청소년, 청년부 겨울수련회

A01(Audience of One Ministry)는 12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먼저 그분을 찾으라(마 6:33)"라는 주제로 차세대와 도시선교에 열정을 가진 전도사이자 상담자인 존 김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뉴저지장로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11월3일까지는 215불, 12월1일까지는 235불이다. VENMO: @a01dance

▲ 문의: 917-971-1338

뉴욕한인청소년센터, 2024 바디 워십 페스티벌

뉴욕한인청소년센터는 12월 1일(주일) 오후 6시 충신교회(안재현 목사 시무)에서 2024 바디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문의: 718-353-1388

뉴욕목사회, 동네세매출성경세미나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오전 9시30분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 시무)에서 지역은 목사와 함께하는 동네세매출 성경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한필상 목사 201-675-9591, 김경길 목사 917-682-4566

퀸즈한인교회 “나의 목회 철학” 세미나 개최

총 11명의 강사 목사들이 전해준 교회관과 목회 철학



세미나 강사들: 류응렬 목사, 고현중 목사, 하성진 목사, 이돈하 목사, 박신웅 목사, 박형일 목사, 윤대혁 목사, 김우준 목사, 이해진 목사, 심상현 목사, 김바나바 목사, 김광선 목사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10월 22일(화)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나의 목회 철학"이라는 주제 아래 11명의 현재 활발하게 미국 내 각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교회관을 전하는 목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의 첫 주자로 나선 주강사 류응렬 목사는 "한 사람"을 주제로 전한 목회 철학에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한다.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목회를 하고자 했으며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목사의 관심이다. 예수님께 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시는데 항상 초점을 두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현중 목사(디사이플교회) "제자훈련, 선교교회", 하성진 목사(벨류사람의교회) "Following Jesus", 이돈하 목사(오레곤벨렐교회) "이민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교회",

박신웅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Acts 29", 박형일 목사(토론토말말교회) "교회같은 가정, 가정같은 교회",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삼는 교회", 이해진 목사(아틀란타벤엘교회) "말씀, 능력, 열매, 그리고 다음세대", 심상현 목사(뉴욕 IN2교회) "사도행전속 안디옥 교회", 김바나바 목사(뉴욕퀸즈한인교회) "주는 교회"는 각자의 다양한 현장 사역과 경험, 목회 철학을 나누며 청중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모든 순서는 김광선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의 마침 기도회로 마쳤다. 퀸즈한인교회는 매년 봄, 가을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왔다.

(김재상 기자)



최도성 총장, 이정민 교수, 김재호 교수

한동대학교, 교육비전 나눔의 시간

교육을 세계로 미래로, 세상에 공헌하는 글로벌 HI 플랫폼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10월 19일(토) 오후 5시 필그림선교회(양춘길 목사 시무)에서 학교의 교육 비전을 알리는 특별한 자리를 가졌다.

최도성 총장은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말씀, 예배, 선교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선교사적 사명을 갖도록 교육한다. 또한, 글로벌 대학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양성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 섬김을 받는 역피라미드형 리더십을 실천하는 '학생 First' 대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처장이며 생명공학부 교수인 이정민 교수는 "한동대학교의 존재 이유는 세상이 점점 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교회와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파라체치 역할을 하며, 영성, 정직, 그리고 아카데미 엑셀런스

를 강조해 학생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김재호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30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글로벌 대학'에 한동대학교가 선정되어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총 1,6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향후 5년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AI 인공시대를 넘어 HI 전지능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글로벌, 산업 및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세계 대학의 미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한국 이민교회, 유학생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설명 후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순서는 박순탁 목사의 기도회로 마쳤다.

(영성취재 홍현숙 기자)

뉴저지장로성가단, 제7회 정기연주회

뉴저지장로성가단(단장 박성빈 장로)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제 7회 정기연주회를 10월 27일 오후 5시 아폴라연합 감리교회(담임 김중남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믿음의 축복」 「내 주여 뜻대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시편1편」 「그 사람 내 생명」 「분향을 향하네」 「선한 능력으로」 총 8곡의 성가합창이 공연되고, 바리

톤 채희승과 현악 5중주가 특별 출연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음악감독 윤길웅 지휘자는 "매주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신 앙고백하는 장로님들과 성심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연주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전화 201-686-5771 박성빈 장로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뉴욕장로성가단)



연금위원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KAPC 연금위원회의 열려

목회자휴가, 연금 등 복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권혁천 목사) 연금위원회(위원장 이준우 목사)는 10월 21일(월)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아드리아 호텔에 모여 교단 목회자 복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 이준우 목사, 서기 허준준 목사, 위원

조문휘 목사, 위원 최해근 목사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연금위원회에서 이번에 의논한 사항은 목회자 휴가와 연금 상황에 대하여 교단적으로 발전 방향을 찾고자 모였다.

위원장 이준우 목사는 이미 KAPC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현재 PCA 교단의 제네바 연금 프로그램(Geneva Benefits)을 통한 연금 복지혜택 제공의 목회자 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교단 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의 휴가 혜택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교단 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10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l(T.D)
- 1(화) 오후 2(수) 오후 3(목) 저녁 4(금) 낮 5(토) 오후 7(일) 오전 7(일)~8(화) 낮 9(수) 오전 10(목) 오전 11(금) 오전 12(토) 오후 13(일) 오후 14(월) 오후
- 15(화)~18(금) 20(일) 저녁 21(월) 오전 21(월) 22(화) 오전 23(수) 오전 24(목) 오전 후 25(금) 저녁 27(일) 저녁 28(월) 오전 29(화) 오후
- WRC 국제적십자 (총재 권세라) / KOREA HOUSE 010-7675-0002
송추 반석교회(고관능 목사) 010-2391-3004
예산 백합수양관(원장 김정애) 010-9350-7004
인천 송도국제도시 빛과소금교회(조광원 목사) 010-8248-7004
한국교회 회복운동(총재 한오현 목사) 010-9578-0049, 정진희 목사
국민일보대담 한국기독교연합회(대표 현영훈 총장) 010-2009-7272
서울 성령소복교회(박현진 목사) 010-2042-0591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구리 국제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총장 최영 목사)
연세대학교 총동문 부흥협의회 / 연세대 백양누리
한국기독교부흥사단(대표 최영준 목사) 02518-5561
Special Blessing Service
서울 열린교회(최태선 목사) 010-3298-802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강문진 목사)
서울 강남 영동제일교회(강석훈 목사) 02518-5561
Mission to Trip Asia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KACAM 목사 안수식 / 할렐루야교회(김승우 목사)
경산 빛나는교회(정경호 목사) 010-7706-0635
한얼산기드웨(원장 이영국 목사) 주최 : 노헤미아부흥성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화성 꿈넘어꿈교회(김현수 목사) 주최 : 월드기독교총연합회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UN Day 연합성회 010-7567-8291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97
서울 누가선교연합회(김성만 목사) 주최 : 한미연합부흥성회(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기범 목사) 010-2238-3999
대전 주안교회(전정순 목사) 010-5255-7777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정기총회(대표회장 박승주 목사) 010-7561-0191 한샘교회(이승현 목사)
서울 축복기드웨(박영화 목사),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새로운 3040이 온다...

(1면에서 계속) 3040의 사회 경제적 측면

MZ세대를 하나의 동일한 세대로 이해하는 시도가 있지만, 이러한 시각은 사실 두 세대의 본질적인 차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이전 세대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이며,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형성되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윤리적 가치 역시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부유한 Z세대

최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Z세대의 경제력을 분석하며, 이들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묶어 MZ세대로 부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이들은 확연히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Z세대는 기술 발전과 함께 자란 덕분에 빠르게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들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 해

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누리며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2. 안정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많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취업난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그리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밀레니얼은 높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인 여유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실직과 파산을 목격하며 경제적 불안정성을 경험했고, 이는 성공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와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는 직업의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며, 상사에게 순종적이고 이직을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공무원, 교사, 의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안정된 직장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반면, Z세대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3. 경제적 안정

Z세대(1997-2012년 출생)는 금융 위기를 겪지 않은 비교적 안정된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제프 라리모어(Jeff Larrimore) 연구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과 세금을 고려한 세대별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Z세대는 같은 연령대의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가계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5세 Z세대의 가구 중위소득은 4만 달러 이상으로,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같은 연령대 소득에 비해 50퍼센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16-24세 미국인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022년 기준 13퍼센트로, 이는 데이터 수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직업관과 가치관

Z세대의 경제적 안정은 그들의 직업관과 가치관에서도 두

드러납니다. 이들은 인문학 같은 추상적인 학문보다 과학, 공학, 의학 등 실용적인 학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노동의 안정성보다는 높은 임금을 중시하며, 이러한 태도는 노동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Z세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주된 이유로 높은 임금을 위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Z세대는 퇴사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더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들이 남성과 경쟁해 더 높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려 노력하는 반면, Z세대의 여성들은 '달팽이 소녀(snail girls)'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천천히 일하고 자기 관리를 우선하는 삶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Z세대의 특징은 앞으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윤리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관은 종교 활동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y 이춘성, TGC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07(도원동) Fax. 02)401-777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2024 가을부흥회에서 노희송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 2024 가을부흥회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말씀의 기초에 있음이 중요해”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2024 가을부흥회가 'Faith Forward: 이끄심 의 삶'이라는 주제로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노승환 목사(토론토 큰빛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성국 목사 인도로 20일(주일) 오전 9시45분 2부 예배 시간에 시작된 마지막 날 집회는 이인규 장로 기도, 호산나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노승환 목사가 '이끄심 의 삶: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심 의 삶(요 21:15-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승환 목사는 “하나님은 첫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신다.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다. 그것이 처음 수준으로 머물러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관계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목사는 “첫째 성숙한 사랑은 실패를 통하여 깨닫는 사랑이다. 주님과 멀어지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말씀의 기초에 놓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이 우선순위가 돼 버린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번째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는 사랑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오면 주님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랑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사람, 상황, 교회를 위한 사랑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 성숙한 신앙은 서로의 실패와 무너진 영역을 회복해 주는 신앙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고창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코너스톤교회 첫예배 31주년 기념예배가 열렸다

코너스톤교회 첫예배 31주년 감사예배

“1세와 2세 3세가 함께 예배하며 사역하는 교회 될 것”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첫 예배 31주년 감사예배가 20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신디 신 선생의 QT나눔과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영덕 장로가 기도했으며 CPT과이어 찬양, 박성수 목사(부산온누리교회 담임), 김영남 목사 부부(앤쿠버 조이풀교회) 영상축사, 전용택 형제 간증이 있었다. 이어 이종용 목사가 31년간의 목회여정에 대해 회상하며 코너스톤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용 목사는 “한국에서 가수생활을 하며 인기를 누렸다. 지지스 크라이스트슈퍼스타 뮤지컬 공연을 249회를 했었는데 예수님 역할을 맡았었다.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대중가수 생활을 하는 것에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공연을 통해 내 체질이 바뀌었고 그것은 목사가 되는 길로의 이끄심이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 샌안토니오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목회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집실에서 16명의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며 코너스톤교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다”며 “코너스톤 교회는 첫째 QT를 통해 우리 삶을 빌드업하는 교회(엡 4:1-16),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제가는 교회, 세 번째 평신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하고 성장시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간 진행해온 커넥션 사역을 소개했다. “전 세계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커넥션 사역을 해왔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때 우리교회 같은 크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왔던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커넥션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하려고 한다”며 “코너스톤은 1세와 2세 3세가 함께 예배하며 사역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호 형제(주차사역)와 이철호 목사가 간증을 나누었으며 주영희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익스플로74 50주년 기념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익스플로74 50주년 기념예배

“익스플로74는 흥해의 사건 같은 기적”

익스플로74 50주년 기념예배가 20일(주일)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강성봉 회장(KCCC 나사렛 형제들 회장)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사역을 더욱 확인시켜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계성 장로(서부열린문교회) 대표기도, 익스플로74 역사적 회고로 넘어서 주제 영상, 김한국 목사, 김영렬 목사, 김미희 목사, 김기일 장로, 서정숙 사모, 이성우 목사, 김보라 목사, 강순영 목사 등 익스플로74 참여간증과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지휘 장진영) 특송,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 글로벌 대표)가 사 43:18-20를 설교했다.

그때 여의도광장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그 응답은 순무브먼트에 모인 학생들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타인종 학생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네팔 단기선교대 순무브먼트 학생들을 통해 네팔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매주 모이는 순무브먼트 모임에 2천여명이 모이는데 기도를 할 줄 몰랐던 타인종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남가주는 물론 북가주, 보스턴, 뉴욕, 뉴저지, 아틀란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차세대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이는 여러분과 같은 부모세대의 기도의 열매”라고 말했다. 이어 두상달 장로, 심상범 목사, 박영률 목사, 임현수 목사, 박성민 목사 영상축사와 송정명 목사 축사가 있었다. 이날 예배는 강순영 목사(전 미주 KCCC사역총무)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기쁨의교회 설립 43주년 기념부흥사경회에서 황성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기쁨의교회 설립 43주년 기념부흥사경회

“이 시대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있음을 알게 돼”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는 교회설립 43주년 기념부흥사경회를 ‘기적’이라는 주제로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사경회는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20일(주일) 1부 예배 시간인 오전 8시 이종표 목사의 찬양인도와 이황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마지막 날 사경회는 김경관 집사 기도, 연합찬양대 찬양, 이황영 목사 집례로 성찬 성례전으로 이어졌다. 이어 황성은 목사가 ‘기적이란? (사 45:5-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성은 목사는 “이 시대는 기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많은 기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며 “기적을 믿는지에 대한 여부는 세 가지에 달려있다. 첫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느냐 안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좌우된다. 둘째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이다. 성경은 신화도 아

니고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다. 세 번째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이다. 예수 안에 새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고 새것으로 바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적이란 역사 속에 활동해 오신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평소에 자연 질서에 한시적으로 예외가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사건”이라며 “초자연적 현상으로 날마다 갈구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황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임직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부교계 게시판

재미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동문회 정기총회
재미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동문회(회장 유용웅 목사) 정기총회가 28일(화) 오전 11시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13)567-2349, (562)217-1163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27일(주일) 오후 5시30분에 갖는다. 이번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김주혜, 김시연, 메조소프라노 채주원, 테너 오위영, 전승철, 바리톤 권상욱, 피아니스트 윤경미, 바이올니스트 김정아, 강희선, 한지인, 첼리스트 김원선이 출연하며 소프라노 김종숙이 해설을 맡는다.
▲ 문의: (213)379-2527

제8회 캘리포니아바이블컨퍼런스
제8회 캘리포니아바이블컨퍼런스가 11월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씨뿌리는자와 하나님나라(마13:3-9)’이며 강사는 고창현 목사(토랜스제일장로교회 담임)와 고현중 목사(다사이플교회 담임)
▲ 문의: (310)702-2688

샌디에고 유스 연합 찬양의 밤
샌디에고 유스 연합 찬양의 밤 집회가 25일(금)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샌디에고갈보리교회(담임 김도일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찬양의 밤 집회는 갈보리장로교회, 한빛교회, 새소망교회, 연합장로교회, 소망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 문의: (858)278-3210



셀비치한인합창단 제12회 정기공연이 OC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셀비치한인합창단 제12회 정기공연

셀비치한인합창단(단장 김형구 목사, 지휘 송규식 목사, 반주 김애영) 제12회 정기공연이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일(토)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는 소프라노 에스더 김과 바리톤 김경태, 그리고 클라리넷 나민주 목사가 출연하여 공연을 빛내주게 된다. 셀비치한인합창단은 대규모 은퇴자 거주 단자인 셀비치 레저월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휘자 송규식 목사는 “이번 정기공연은 ‘그리움’을 주제로 우리

가곡과 민요를 선보이게 된다”라며 “공연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아픔과 슬픔에 대한 위로와 치유를 전하고 아직 남은 우리 삶에 대한 환희와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곡 연주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셀비치 한인합창단은 2007년 4월 16일에 그레이스 김씨가 창단했다. 초대 지휘자 박환철 장로가 7년, 2대 지휘자 백경환 목사가 9년 동안 합창단을 이끌었다. 자세한 것은 (714)699-021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셀비치한인합창단)



가주 늘 노래 합창단 2회 정기 연주회가 로렘장로교회서 열렸다

‘늘 노래 합창단’ 두 번째 정기 연주회 성료

가주 늘 노래 합창단(단장 김용중, 이사장 공영옥)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10월 13일(일) 오후 5시 로렘장로교회(담임 박일홍 목사)에서 개최됐다. 늘 노래 합창단은 지난해 ‘밀알 장애인 돕기’ 음악회를 올리는 ‘시각 장애인 돕기’라는 부제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박일홍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에선 소프라노 오혜령이

특별 초청되었고 ‘주의 동산으로’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등 아름다운 찬양곡을 무대에 올려 갈채를 받았다. 이날 연주회의 지휘는 전성진 목사, 반주는 신혜영, 그리고 로렘장로교회, 호산나 교회, 레저월드 한인커뮤니티 교회, OC한인시민권자 협회, 헌팅턴 비치 한인교회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정리: 박준호 기자)



백인자 한세대 총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최경배 JC빛소망안과 원장, 뮤지컬 배우 카이(정기열) 지목

백인자 한세대대학교 총장은 지난 21일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된 공익 캠페인으로 교육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 공공기관장 등이 ‘불법 사이버 도박은 사기범죄’라는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챌린지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엄연한 사기 범죄로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알리는

동시에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에서 시작했다.

김경수 나사렛대학교 총장의 지목을 받은 백 총장은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최경배 JC빛소망안과 원장, 뮤지컬 배우 카이(정기열)를 지목했다.

백 총장은 “온라인 활동이 익숙한 청소년들은 사이버 게임과 도박 등에 쉽게 노출돼 청소년 불법 도박 중독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세대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 공헌 및 관련 인재양성에 노력하면서 특히 불법 사이버 도박에 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백 총장과 함께 한세대 학교의 총학생회를 대표해 최원우 총학생회장과 김수빈 부총학생회장, 박준의 미디어커텐츠통장, 김범연 문화체육국장, 이지혜 예배국장, 장은서 홍보차장 등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비혼 시대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돼 외롭지 않게

경기도 과천교회(주현신 목사)는 10여년 전 만들어진 ‘30+’ 교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32~42세 청년들의 교제 목적으로 시작된 이 교구를 ‘패밀리’ ‘커플’ ‘싱글’로 세분화해 따로 모임을 갖게 만든 것이다. 자녀나 가정 문제가 주요 관심사인 이들과는 다른 미혼 또는 싱글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사역을 하기 위해서다. 30+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할 목사는 “최근에는 영혼 관람이나 맛집 탐방 등 싱글을 위한 동아리 모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있다”면서 “이제 비혼주의 청년들도 교회를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싱글즈 프렌들리 처치’가 꼽혔다. 교회가 비혼이나 이교구 등 새로운 싱글 가정을 위한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3’(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20~29세 여성 비율은 2008년 52.9%에서 2022년 27.5%로 반토막 가까이 줄었다. 과천교회와 전날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이사장 김지철 목사)과 함께 열었던 ‘핵 개인 시대에 혼(婚)을 말한다’ 세미나에서도 비혼 시대 교회의 역할이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청년들이 왜 비혼을 추구하며 싱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가 분석됐다.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은 “청년들의 비혼은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 현실적이지 않은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갈등하기보다 혼자 사는 편이 좋다는 저항의 목소리”라고 진단했다. 김 처장은 “청년부를 ‘결혼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전까지 머무는 곳’으로 삼정하고 청년들을 ‘결혼 대기자’로 취급하는 태도나 결혼 예정자가 마치 ‘신분 상승’을 한 듯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 등 비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도 교회 내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독신주의자였지만 결혼에 대해 포용성과 유연함을 보여줬던 바울의 삶도 재조명됐다. 정은찬 장신대 교수는 “바울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했으며 특히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주길 기대했다”며 “바울은 1인 가정, 4인 가정, 그 외 모든 형태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함을 배우길 원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함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종교행사 강요 안돼” vs “사학 자율성 보장 마땅” ...

또 충돌, 해법은

성가합창 등 미션스쿨 등 특 정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권고안에 대해 교계가 기독교 사립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계에서는 이같은 충돌이 미션스쿨을 포함한 사립고교에까지 적용되는 평준화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21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의 A 고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가합창대회와 종교 예배를 강요한 사례에 대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학교는 연간 약 22회의 종교 예배를 진행하며 성경퀴즈골든벨과 같은 행사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었다.

이번 권고는 2023년 5월에 발생한 동일 재단의 중학교 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명시된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이라 할지라도 중립학교가 아닌 일반법인이 설립한 일반고”라며 “학생 동의 없이 종교 과목을 운영하고 예배 참여를 강제하는 헌법과 학생인권조례가 보호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립 취지를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했고 학생들이 종교 교육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학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교계 전문가들은 기독교

교 미션스쿨의 자율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을 근본적 문제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는 “미션스쿨을 포함한 사립고교에까지 적용되는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이 종교계 학교를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이를 피할 권리도 국가 정책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승수 사학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독교 미션스쿨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는 고교 평준화가 시행 50년을 맞이한 2024년 초부터 ‘평준화 2.0 정책’을 제안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함 사무총장은 ‘학교선택권 보장 운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교육 바꾸어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 재정을 바꾸어 형식으로써 학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모와 학생들이 교육 선택권을 얻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 읽기 어떻게 할 것인가...

충현교회 ‘리딩 지저스 콘퍼런스’

서울 충현교회(한구삼 목사) 교인 10명 중 8명은 다음 달이면 3년 만에 성경을 3독한다. 내년엔 ‘전 교인 성경 1독’을 목표하고 있다. 교인들의 삶에 성경 읽기가 일상인 된 건 교회가 2022년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총장 피터 린백)의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리딩 지저스’를 도입한 뒤부터다. 교회와 학교는 21일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콘퍼런스 2024’를 열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성과를

나눴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읽는 과정은 성경적일 뿐 아니라 또한 삶을 변화시킨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줄리어스 김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이 성경적인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배후시킬 수 있는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도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란 주제로 강의했다.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의 성경적 원리를 소개하는 강의였다. 프로그램은 45주간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목회자는 성경 통독의 진도에 맞춘 설교를 통해 교인을 양육한다. ‘성경 읽기’ ‘성경 수업’ ‘성경 나눔’으로 구성된 교재는 소그룹 통독 모임 등에서 활용된다.

한구삼 목사는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성도”라며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는 편협하고 예상 가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역동적인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피터 린백 총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드러낸다”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20년 연탄지기’ 허기복 목사

낮은 자의 애환과 허기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기후 취약계층과 소외이웃을 돕는 구호단체의 겨울나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밤상공동체·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은 ‘기후 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300만장 나누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가난한 이들이 기후 대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으면서 연탄이 생존을 위한 에너지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연탄은행에서 만난 허기복 목사는 “연탄사용 가구의 8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가계소득이 줄고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난로의 사용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목사는 지난 9월 세 번째 책 ‘밤과 연탄으로 만든 길’을 펴냈다. 1997년 외환위기 시절, 절망에 빠진 이웃을 본 그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뛰어들던 순간부터 27년간 어려운 시민과 함께한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의 애환과 허기, 슬픔, 공허함을 온기와 희망으로 변화시킨 기적 같은 사연을

엿볼 수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무일푼 봉사를 시작한 그는 소외계층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됐다. 수익금은 전액 연탄후원에 쓰일 예정이다.

“제 삶을 보고 누군가는 억척스럽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열심히 산다고 해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을 그렇게 알아야. 사람과 사람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살아가는 거죠.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보인다면 충분히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밤과 연탄으로 만든 길) 특별한 이유도 비슷하죠. 책을 통해 희망의 소식이 널리 전해지길 바라요.” 허 목사는 바울이 말한 초대교회 정신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야 한다”며 “사회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화 된다고 해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으로 살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목사는 “불경기와 연탄후원에 관한 관심 감소로 올해 목표치인 300만장을 채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사회 소외 이웃을 위해 900원(연탄 1장 가격)의 사랑을 베풀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교회 대상’에 이영훈·이철·소강석 목사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한국교회 비전대회 수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한국교회 140주년 기념 한국교회 비전대회’에서 ‘한국교회 대상’을 받을 15개 분야 개인·기관 수상자 명단을 22일 발표했다.

비전대회는 다음 달 12일 충남 백석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교총은 목회·공포상에 림인식 노랑진교회 원로목사, 목회·신학 부문에 이영훈 목사,

목회·선교 부문에 이철 감독회장, 목회외연합 부문에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이봉관 서회건설 회장(정치·사회) 이건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장(의료복지)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기관)도 각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조민태 국민일보 회장은 저출산·다음세대 부문으로 수상한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상임회장단 회의(사진)를 연 한교총은 오는 12월 5일 제8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 인선위원회(인선위)도 꾸렸다. 장종현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선위는 임석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이 서기, 김의식(전 예장통합 총회장) 이철(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목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인선위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상임회장단에 차기 임원 후보 명단을 제출한다.

mission 선교의 창 (24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이상적인 미(美) 대통령의 자격기준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5일 화요일이다. 과연 누가 당선될까? 공화당의 트럼프(Donald John Trump, 1946-6-14 생) 후보와 민주당의 해리스(Kamala Devi Harris, 1964-10-20생) 후보 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백중세이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7대 결합 주(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가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왜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가? 초 접전 때문일까? 냉정히 말해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의 일극(一極) 체제가기 때문이다.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 난세는 영웅을 필요로 하고 영웅은 역사를 만든다. 지금 시대는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이는 미국에서 공식의례 등을 거행할 때 성조기를 바라보며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국가에 대한 경례(The pledge of allegiance)를 하고 있다. 여기 맹세문에는 모든 이를 위해 미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서 자유와 정의가 강물 같이 흐르는 공화국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청교도 신앙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무엇보다 건국이념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God Bless America! 우리는

무를 수행하라는 목사가 내재한 것을 아닐까? 지난 248년의 역사 속에서 미국은 많이 변화했다. 교회에 세속화 물질 만능주의로 꽃을 피우고 있다. 창조주 자리에 인간들이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보편화되면 우리 앞

이든 국가든 축복이 클수록 사명도 크기 때문이다.

3. 실력 있는 리더십의 사람

국가의 수장이자 세계를 리드해야 할 미 대통령은 막중한 책무가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유능해야 한다. 실력이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옛날 왕조시대 때는 선왕의 낙점에 의해서 어린 자녀가 왕위를 계승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이들이 왕좌에 오르니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튼 최고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역량(Innovation Driver)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역량이란 강력한 리더십을 말한다. 세상만사 모든 일에는 저항이 있다. 특히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항상 기득권층이나 수구세력의 반대가 있어 왔

아야 할 부담이 아닐까 싶다. 그 어느 때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지도자가 요구된다.

4. 인재 등용의 안목이 있는 사람

정치 지도자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칠 수 없다. 수많은 영역에서 국정 비전과 철학을 시행해줄 인재들을 발굴하고 은사에 맞는 자리로 배치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이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다. "인사만사"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삼국지는 지역 제후들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영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다. 자기의 비전과 소원을 수행해 줄 인물을 찾으나 못 찾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다. 만일 인재를 찾지 못했거나 찾았다 해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를 못할 때는

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결격사유가 있다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도덕성 중 최고는 희생정신이다. 지도자는 나라의 제단에 바쳐진 촛불과 같은 존재이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사방에 빛을 발한다. 모름지기 국가를 영도해야 할 지도자가 자기 몸을 사린 체 사리사욕을 앞세운다면 이러한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는 늘 자기 심령을 비워야 한다. 그것은 "내 나라가 융성하며 내 백성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 되어도 좋다."라는 공심(空心)의 자세이다. 이런 후보가 있는가?

맺음 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하다. 역사적 상황과 상충된 이해관계가 난맥상을 이룬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이상적인 대통령상을 제시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 찾아야 하고 택일해야 한다. 선공관대 총장을 지낸 고(故) 장을병(張乙炳) 교수는 선거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면 힘들다고 했다. 그는 선택 방법을 역으로 추리면 쉽다고 했다. 즉, 좋은 사람보다 가장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부터 가려야



난세는 영웅을 필요로 하고 영웅은 역사를 만든다.
미 대통령은 내치(內治)는 물론 열방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뜻을 받들 인물이 선택되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안, 밖으로 산적한 과제가 있다. 특별히 지구촌 두 곳의 전쟁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밀어야 하는가? 투표권자는 사사로운 이해타산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진정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인물이 선출되도록 성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 1. 청교도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
- "I pledge allegiance to the

머지않아 미국의 47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볼 것이다. 그 날은 2025년 1월 20일이다. 이때에 당선자는 오른손은 들어 선서를 하고 왼손은 성경 위에 얹는다. 누가 승리자로서 단애 오를 것인가? 기대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량(賢良)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2. 세계를 품은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서는 1776년 7월 4일,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을 건국케 했다.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는 무엇일까?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직

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요구되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독수리처럼 힘이 세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어야 한다. 흰머리 독수리(American Bald Eagle)는 1782년 미국 의회에서 "미합중국의 국조(國鳥)"로 지정되었다. 이 독수리는 나는 동물 중 가장 크고 멀리 보는 눈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용맹과 불멸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은 창공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처럼 미국을 넘어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고로 개인

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 독심이 있어야 한다. 통지력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목적(Purpose)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목표를 향한 열정(Passion)이 뒤따라야 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Pride)와 확신도 있어야 한다. 이를 일컬어 3P라 한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 밖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구촌 두 곳에서 전쟁으로 살상과 파괴가 매일 자행되고 있다. 누가 저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47대 미국 대통령이 떠 안

망사(亡事)가 되기 쉽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보면 2,000여 년 전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놓고 싸움을 벌였다. 결과는 명문 출신으로 조건이 훨씬 유리했던 항우가 유방에게 패했다. 주된 원인은 용인술(用人術)에서 판가름난 것이다. 이렇듯 모든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따라서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얻는 자이다.

- 5. 희생을 앞세우는 도덕성이 있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흠결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지도

래서부터 한 사람씩 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는 설이다. 일리가 있다. 금 번 제 47대 미국 대통령을 뽑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미 합중국의 선장으로 세울 것인가? 청교도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다. 세계를 품은 비전의 사람이다. 실력 있는 리더십의 사람이다. 인재 등용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희생을 앞세우는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략가)

35강 한나, 사무엘 (사무엘상 1-7장)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미스바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삼상 7:3)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삼상 7:4)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하라고 한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신인 바알과 그의 여

니라는 아세라 그리고 바알의 부인이라는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서 함께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자 다시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삼상 7:8)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젓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

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위급한 와중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적군을 앞에 두고서 군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신앙 행위와 여러고성을 무방비 상태로 7번 도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극적인 회복으로 보이지만 결국 아직도 사사기의 연속일 뿐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새 언약'(렘 31:31-34), '영원한 언약'(렘 32:40), '새 마음'(겔 36:26), '새 영'(겔 11:19)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싶어도 할 수 없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중간 중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사무엘은 단지 제사장만이 아니었기에 지도자로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습니다(삼상 7:6,15). 그러나 사무엘의

'다스림'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왕들의 다스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사 쪽, 선지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선지자이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삼손을 시작으로(삿 13:5) 사무엘을 거쳐(삼상 7:13) 다윗을 지나(삼하 8:1) 결국 영적 블레셋인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멸될 것입니다.

'안식'하는 사무엘

아직 사무엘이 죽는 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40년은 더 지나야합니다(삼상 25:1). 그러나 이제 성경은 사무엘에서 그 중심이 사울에게로 넘어갈 것이고 사무엘의 이

후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 함께 등장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성경에 몇 안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자녀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삼상 8:3)고 하여 또 다른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반복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철저히 개별적이지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주인이 쓰시기 좋은 자 (막 11:1-6) 찬 436장

나의 주인을 알고 사는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가? 주인을 위한 존재임을 알고 사는가? 사람은 죄의 생각으로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평생 산다. 그 자체가 주인 앞에서 가장 큰 죄다. 주인을 무시하고 부인한 죄가 되기 때문이다. 나귀 새끼도 주인이 있는데 나귀보다 귀한 자

신에게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불행이다. 주인에게 쓰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방법은 마음에 주인의 말씀을 가득하게 담는 수고를 하여야 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은 말씀을 가득하게 담으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 감동의 능력이 있을 때 주인이 사용하신다.

화 그리스도의 향기 (막 11:12,13) 찬 431장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하였지만 열매가 없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심이다.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쪽정이다.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마

음의 것을 누려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살도록 품고 생각하여 활발하게 살도록 하여야 내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법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한다. 쪽정이를 소원으로 삼고 일평생 살지 말라.

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막 1:15-18) 찬 289장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솔로몬이 건축한 건물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기에 현재 무너져 사라진 상태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계시는 것이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부정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사단으로 인하여

충동을 받아 악함이 가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더럽고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으로 있다면 우상이 있는 타락한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혹시 성전이 아닌데 본인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목 내 안에 있는 죄 (막 12:12,13) 찬 259장

성도는 마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분별해야 한다. 또한 죄가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주님의 것을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죄의 것을 믿고 살 것인지 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인지 아니면 죄가 사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활동하는 죄의 생각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죄를 보호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나의 복

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나의 원수다. 죄의 정체를 알고 원수를 사랑하고 보호하여 주고 내 마음을 그의 안전한 장소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죄의 지시를 따라 죄를 보호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여 들어내라. 죄의 정체를 고발하라. 도망하게 하라.

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막 12:28-31) 찬 38장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변질이 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게 나의 희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사

랑할 때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망의 생각에 속지 않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믿도록 유혹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충만하기 위한 방법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다.

토 죄로 인하여 부정한 자신을 섬기는 자로 살지 말라 (막 12:38-40) 찬 260장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단이 사람에게 심어준 생각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이 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생각은 수시로 나타난다. 항상 그 생각이 나타나면 대적하여야 한다. 그 생각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

기지 못하고 그 생각에 빠짐으로 인하여 사단을 섬기는 결과가 된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의 눈을 열어 같이 하시는 주님을 모시라.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라. 주님 앞에 겸손하라. 인생은 주인을 섬기는 삶이다. 주인 대신에 자신을 섬기는 자는 참 주인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음악 이야기(66)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현대 예배자들을 위한 고전음악의 재 발견

“라틴 텍스트에 의한 레퀴엠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을 중심으로” VI

이제 각 악장의 작곡구조를 통해 스토리를 전개하며 각각 갖고 있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제1악장

레퀴엠의 시작이 되는 이 부분은 “슬픔과 위로”의 주제를 아우르며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브람스는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자신의 십자가 신학의 의도를 드러낸다. 즉 고난을 통한 축복을 표현하기 위해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Selig sind, die da Leid tragen) (마 5:4)를 등장시킨다. 이 간단한 문장은 그동안 전통을 깬 혁명적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조용한 음색은 사랑하는 사람의 귀에 속삭이는 개인적인 메시지임을 암시한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위로의 표현으로 전개되며 무반주 합창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 이 곡에서 브람스의 르네상스 합창 음악에 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산상수훈의 복에 이어 시편 126편에서 발췌한 가사로 톤이 살짝 바뀐다. 독일 레퀴엠의 중심이 되는 시편에서 따온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나가서 울며, 귀한 씨앗을 품고 기쁨을 안고 오십시오.”(시 126:5-6)

이 오프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브람스의 관점의 전환이다. 전통적인 레퀴엠이 죽은 자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브람스는 남겨진 사람들, 즉 상실에 대처하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또한 그의 레퀴엠은 단순히 흥미로운 영적 운동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숨막히는 결실이 되도록 음악의 선율을 만들어 간 것이다.

제2악장

2악장은 1악장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점점 더 강력해지는 장엄한 장례 행진곡으로 시작한다. 전통적으로 행진곡은 2박자 혹은 4박자의 리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브람스는 3/4박자의 리듬을 사용하여 특이한 장례 행진곡으로 묘사한다. 이 주제는 브람스가 슈만의 광기와 죽음 이후 완성하려 했던 미완성 교향곡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어두운 장례 행진곡으로 서주가 울려 퍼지다가 합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개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벧전 1:24). 이를 통해 깊은 고뇌에 잠기게 만들다가 이 생각은 곧 새로운 생각에 따라 중단되고 다시 희망과 위안을 받으며 소망을 품게 된다. 여기에는 같은 3/4박자를 유지해 전형적 왈츠 리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민속적인 왈츠를 연주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같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약 5:7)라고, 간청하는 대조적인 에피소드가 전개된다.

이것이 끝난 후 행진곡은 다시 돌아오고, 이어 이

곡의 대전환이(High Point) 다음과 같은 소망의 진술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벧전 1:25) 그리고는 이곳에서 세 개의 푸가가 전개되는데 그 중 첫 번째 푸가가 130마디에 걸쳐 장황하게 펼쳐진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환희의 송가” 피날레를 연상시키는 영웅적인 음색으로 “기쁨(Freude)”이라는 단어를 노래한다. 이 기쁨에 찬 긍정의 힘으로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기쁨이 임할 것”을 외치며 소망을 품은 채 찬양의 송가를 부르며 종결하게 된다.

제3악장

처음으로 바리톤 솔로가 등장하여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나의 인생에 끝은 어디이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사 35:10)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합창단이 그 내용을 받아 허무한 인생에 대한 한탄을 곁들이며 토로하다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제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펼치며 아주 속삭인 듯한 어조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시 39:47)라는 대답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의 전제적인 마스터 플랜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강력한 표현이 되면서 이 곡에서 대 전환(High Point)을 이루며 위로(Trösten)를 이야기한다.

이어 음악은 더욱 강렬해지면서 이 곡에서 푸가가 전체 세 번 등장하는 것 중 두 번째로 등장한다. 이것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에게 영감을 받은 것으로 긴장이 해소되고, 정교한 베이스 페달(오르간 음악에서 차용한 용어)로, 베이스 음을 발 페달로 연주하는 것)로 하나의 길고 지속적인 베이스 음 위에 만화경 같은 음악적 특징이 형성된다. 33마디에 걸쳐 견고함과 지속성으로 진행되는 합창의 선율 속에 나타나는 텍스트가 “이로써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어떤 고통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노래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듯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라장조(D Major)의 화려한 종결을 맞이하게 된다.

제4악장

이 악장은 전형적 왈츠풍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고라 자손의 시 “주의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시 84:1,2,4)를 노래하면서 묵상과 성찰의 순간으로 만들어 앞선 악장의 침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듯하다.

왈츠풍의 멜로디가 좀 더 복잡한 대위법적 에피소드와 번갈아 등장하는 가운데 천상의 아름다움(Wohnungen)을 표현한다. 이 악장의 단조롭지 않은 감미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레퀴엠에서 자주 발견되는 인기 있는 부분이 되었다. 이 곡은 작품의 영적, 정서적 핵심이 되며 다른 모든 곡이 균형을 이루는 중심점을 형성하고 있다.

연주실황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8BndsQ2FY_k&t=3079s
To be Continued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편지

독일

다민족 셀 교회 소식

지난 1년 형제 성경공부에 진지하게 임하고, 말씀에 목마름을 보인 루벤 형제(35세)를 셀 그룹 리더로 세우려고 그룹 인도 등 훈련 중입니다. 6월 초 루벤의 누나가 이혼을 통보한 날, 루벤 부모님도 이혼의 아픔이 크기에, 누나의 마음을 바꿔주 시도록 4명이 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부부가 이혼을 보류했을 뿐 아니라 딸의 학교문제로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린 셀 교회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 심어주셨습니다. 몇 달 후 누나 부부는 야외 모임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몇 달 전 쾰른 도시 행사 때 만난 구정장에게 교회 모임을 위한 장소를 문의했고, 뜻밖에 자신을 찾아오라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면담 후, 구정장이 소개해준 장소 2군데를 최근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장소 사용에 주님의 지혜와 방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팀과 연합전도

30명의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의 다국어 성경책 준비와 노고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인상에 남는 벤치에 앉아 여러 개의 장바구니를 지키고 있던 세르비아 아줌마. 독일 30년 거주 중 독일 생활이 좋냐는 질문에 힘들다며 20세 아들이 부모님 말을 듣지도 않고, 세상은 코란에 적힌 말세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어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펼쳐서 보여주었고, 흥미롭게 읽는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입는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때, 주님이 복음 전도를 도우신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는 성경책을 받고 싶은 내색이었지만, 이슬람 남편의 극구 반대로 차마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한 터키 노부부는 선지자 중 하나인 예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터키어 성경

을 받아갔지만, 대부분의 독일인은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새로운 초청

매일 300명(일인당 15초)을 10년간 중보 기도하여 중국의 고위관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과거 주중대사의 간증을 듣고, 기도와 전도의 깊은 연관성에 대한 믿음과 열망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소그룹과 이웃, 다니엘 목사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목록으로 적어보니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이전보다는 자주 기도하면서(매일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영적 유익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이 돌고 같은 독일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석에서도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나의 부정적인 느낌이나 견해를 넘어서도록, 나의 믿음을 넘어 하나님께 믿음을 두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독일어 공부와 독일 영주권(?)

독일어 중급 집중코스를 마치고, 어려운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3500 개의 단어들을 지난 6개월간 소화하려고 체력이 소진되고, 주마간산 스쳐 지나간 것만 같은데, 이제는 이주민 난민들과 남편의 답답한 통역 없이도 소통하고, 이웃 독일인들과의 대화도 좀 더 진전되어 그동안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심을 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무기한(무제한) 거주증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와 섬김의 문들이 더 열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증명하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의로 서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살도록 돕고 계시는 주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 말씀과 기도로 무장, 복음 전도에 열매를 위하여
- 셀모임 예배 장소들을 보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



- 다민족 셀 그룹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살고, 섬기도록
- 동생 가족의 구원과 질병 치유
- 노부모의 영육 강건

전혜진, 다니엘 서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이란

▲ 종족명 칼라지 종족

▲ 인구 약 50,000명

▲ 종교 이슬람교 100%, 복음화율 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칼라지어에는 고대 튀르크어의 특징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시아파 무슬림이며 대부분 이란의 마르카즈 지역에 거주하고 아프가니스탄 및 지역에도 흩어져 있다. 탈라스 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의 일부는 전쟁과 정복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 기도제목

1. 칼라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일으켜 주시도록 속히 칼라지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2.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빛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신앙 에세이

밀줄이 되는 인생

글을 읽다가 좋은 시나 문장을 만나면 밀줄을 긋기도 하고 옮겨 적어두고 자주 꺼내 보기도 합니다. “한 개의 기쁨으로 천 개의 슬픔을 감싸고”라는 문장을 보았을 때 무거운 삶의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삶이란 슬픔과 고난이 태피스트리(직물공예)처럼 엮여져 우리를 두르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아리아가 들려오고 눈물을 넘어 기쁨의 한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 삶의 무게를 담고 일어나는 힘을 연습

다. “진짜 금이 없다면 진짜 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격언을 읽을 때면 기독교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버젓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볼 때마다 우리가 확고히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은 광야 같은 삶에도 무한한 꿈을 품게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이 한 문장으로 열

마나 많은 사람이 삶에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로 사방이 덮인 광야를 지날 때 이겨낼 수 있었던 힘 님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요, 마침내 그들 앞에 펼쳐질 가나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

류응렬 목사 (양성통증양정로교회)



밀줄

내 무수한 말 가운데 단 한 마디라도 누군가의 삶에 밀줄이 되어 아픈 마음을 감싸줄 수 있다면

내 쓰는 수많은 문장 가운데 단 한 줄이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밀줄로 남아 넘어진 그를 일으킬 수 있다면

내 지내온 오랜 삶의 흔적들 단 한 순간이라도 누군가 밀줄 긋고 싶은 삶이 된다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언젠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실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줄 문장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삶을 일으키는 한 줄의 문장이 되기를 바랍

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누군가가 밀줄을 긋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preachchrist@kcpc.org

베드로 진서 32

달란트 비유에서

담임목사님의 신년 설교는 새해에 성도의 영적인 삶을 강조하셨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셨는데 게으른 종은 자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무익한 종으로 낙인찍혔는데 그 한 달란트가 빛이었을까 생각할 때 자신은

하나님이 인생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땅 세상에 묻어두고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셨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다. 꼭 달란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

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담임목사님은 다른 달란트는 빛이다 하는 설명은 않았지만 숨겨둔 한 달란트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듯 영적 인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설교를 들으며 다른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는 무엇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에게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곧 근본적으로 영적인 삶을 위한

김경진 목사 (בל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달란트는 세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고 또 다른 달란트는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

을 살까 하는 노력과 수고의 달란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맞을까? revpeterk@hotmail.com

중상모략이 일상이 된 세상

(2면에서 계속) 애초에 중상모략을 할 의도가 있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단순히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중상모략에 가담하기도 한다. 중상모략이 널리 퍼지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비방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들의 노출(profile)을 높이고 고발자와 피해자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도록 유도한다. 제도가 쇠퇴하는 시대에 소셜미디어는 뭔가 공명점을 찾거나 함께 어울리려는 노력에서 사람들을 벗어나도록 유도한다.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선 새로운 목표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만약에 2,30년 전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세상에 펼쳐져서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본다면, 만연한 중상모략의 현실 앞에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죄를 용납하는 사람들과 너무도 쉽게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중상모략이라는 활동이 특히 무서운 것은 그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세상과 맺는 중상모략, 그리고 우정

우리 시대의 이상한 아이러니 중 하나는 진리 앞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가치에 반대하며, 또 세상과 야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조차도 중상모략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절하게” “귀엽게” 또는 “틀기 좋게” 하더라도 중상모략은 중상모략이다.) 그들은 야고보서 4:4,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를 인용하여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적대 감입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다. 하나님 편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건 다름 아니라 가족, 교회,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친 이념에 맞서거나, 성적 부도덕과 음란물의 도덕적 늑과 대중문화의 얕은 매력에 맞서는 것이다.

거룩함에 대한 선하고 경건한 욕망에서 비롯된 이러한 충동은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내 벨은 죄악의 말을 변명하거나 최소화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인 구실로 활용된다. 사실상 야고보서의 맥락에 더 함당한, 세속성이 가져다준 더 미묘한 형태에 대한 경고를 놓친 결과이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를 적대하는 입장에 대한 부드럽거나 지나치게 수용적인 자세를 “세상과의 우정”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야고보에게 “세상과의 우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의

징조는 오히려 “우리들 사이의 전쟁과 싸움”이다. 그 결과 그런 몰락을 갈등으로까지 몰고 가는 “정욕”과 “잘못된 동기”이다.

게다가 세속성에 대한 야고보의 경고는 숲을 불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진 허를 길들이라는 훈계 바로 뒤에 나온다(약 3장). 그리고 그 경고 바로 뒤에 이 명령이 나온다. “형제자매들아, 서로 비난하지 말라. 동료 신자를 모욕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모욕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4:11). 따라서 문맥상 세상과의 우정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질서”로까지 이어지는 “심한 시기와 이기심”이다(3:14, 16).

중상모략의 확산을 저항하라

소셜미디어에서 중상모략은 이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 결과 심지어 중상모략이라고 해도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대의를 돕거나 내 이야기를 입증하는 한, 우리는 쉽게 중상모략이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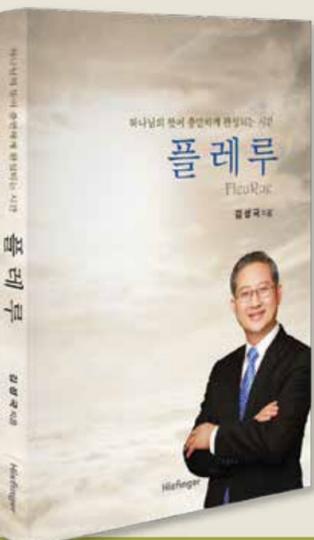
래하는 해로운 효과를 간과하기도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제거해야 할 죄를 보지 않는다.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의 세속성을 정상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 결과 야고보가 묘사한 의로움(“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로 가득함”)이 이제 부드러움, 연약함, 그리고 타협으로 재구성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우리를 두렵게 한다. 소셜 미디어는 중상모략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의로움을 이상하게 보이게 한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중에서 중상모략의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 타인의 망가진 명예를 등에 업고 나의 대의 증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중상모략을 당한 상처가 원한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모든 주변 상황은 도리어 우리를 어둠의 행위로 용솟음치는 소용돌이로

끌어당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단지 회개하며 이런 형태의 세속성에 눈을 뜨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도 첫 번째 단계는 속도를 늦추고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어떠한 진술이나 비난도 아예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야고보가 말했듯이 평화를 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숲을 불태우는 허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머무는 불의 허가 되어야 한다. 대의가 주는 정당성에 눈이 멀어 우리가 사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속성의 충동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은혜주시기를 바란다. by Trevin Wax, TGC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견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uRae 김성국 목사 신간 컬렉션

